

2026년 9월 세계정세 종합 전략분석 보고서

Expanded Final Edition

Global Strategic Intelligence Assessment



- 2026년 세계는 미·중 전략경쟁을 중심으로 한 다국·불목화 질서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동의 구조적 불안, 대만해협의 긴장, 기술·에너지·공급망 전쟁이 글로벌 불확실성과 위협을 국대화하고 있다.
- 글로벌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과 부채, 에너지 전환 비용, 지정학적 리스크가 세계경제를 안방하고 있다.

생성형 시각화: 세계질서를 구성하는 지정학·기술·금융·에너지 네트워크의 개념도.

Research Cutoff / As of: September 2, 2026, 12:30 CDT

작성자: 코리아베스트 | <https://koreabest.org>

작성자: The American Newspaper | <https://americannewspaper.org>

본 보고서는 국제정치, 지정학, 전쟁, 외교, 경제, 금융, 에너지, 기술패권, 동맹정치, 전략정보분석의 관점에서 2026년 9월 현재 세계질서를 종합적으로 해석한 확장판이다.

보고서의 분석 기준과 방법론

본 보고서는 2026년 9월 2일을 기준으로 국제질서를 설명한다. 본문은 단순한 뉴스 나열이 아니라 구조적 힘, 국가 전략, 전쟁과 군사력, 경제·금융·기술·에너지·자원,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상호작용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석 형식은 FACT, ASSESSMENT, FORECAST, SCENARIO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다. FACT는 확인된 사실과 공식 통계를 뜻하며, ASSESSMENT는 자료를 종합한 분석적 판단, FORECAST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전망, SCENARIO는 조건부 미래 분기점을 의미한다. 전쟁 당사국의 전과, 피해, 점령지, 비밀 군사능력, 핵시설 피해, 정보전 성과는 과장 또는 축소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적 수치보다 방향성과 교차검증을 중시한다.

출처는 가능하면 정부·국제기구·공식 전략문서와 1차 자료를 우선했다. 최신 전황과 동태적 사건은 Reuters 등 국제통신사를 사용하되, NATO·IMF·EIA·SIPRI·IAEA·CSIS·Stanford AI Index 등과 교차확인했다. 확률평가와 위험도는 분석적 점수이며 통계적 예측치가 아니다.

구분	정의	표기 방식
FACT	확인된 사실, 공식 통계, 검증 가능한 발표	본문 앞머리에 FACT로 명시
ASSESSMENT	복수 자료를 종합한 판단	핵심 원인·목적·제약 분석
FORECAST	가장 가능성 높은 전망	6개월·1년·3년 시간축 제시
SCENARIO	조건부 미래 분기	촉발요인·결과·시장영향 제시

주요 출처 체계는 본문 인용키 [R1]~[R40] 및 부록 참고자료 목록을 따른다.

목차

보고서의 분석 기준과 방법론.....	2
목차.....	3
1. Executive Summary.....	14
핵심 판단.....	14
전략적 함의.....	14
기본 전망.....	14
2. 2026년 9월 세계질서 한눈에 보기.....	16
구조적 특징.....	16
FACT.....	17
ASSESSMENT.....	17
FORECAST.....	17
3. Global Power Map.....	18
행위자별 요약.....	18
세계 권력의 층위.....	19
4. 미국의 세계전략.....	20
대중국 전략.....	20
대러시아·우크라이나 정책.....	20
중동 정책.....	20
경제안보·무역·산업정책.....	20
미국 패권의 능력과 의지.....	20
FORECAST.....	21
5. 중국.....	22
정치·외교.....	22
경제.....	22

군사.....	22
중국의 전략적 강점과 약점.....	22
FORECAST.....	23
6. 미·중 전략경쟁.....	24
군사 경쟁.....	24
경제 경쟁.....	24
기술 경쟁.....	24
금융 경쟁.....	24
외교 경쟁.....	24
SCENARIO.....	24
7.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26
전선 상황.....	26
무기·탄약·드론전.....	26
경제전과 산업동원.....	26
각 행위자의 목표.....	26
시간대별 전망.....	27
ASSESSMENT.....	27
8. 유럽과 NATO.....	28
주요 국가 동향.....	28
NATO의 변화.....	28
FORECAST.....	28
9. 중동.....	29
이스라엘·팔레스타인.....	29
이란과 핵문제.....	29
미국-이란 직접충돌.....	29
걸프·홍해·에너지.....	29
주요 행위자별 전략.....	29

지역전쟁 가능성.....	30
FORECAST.....	30
10. 동아시아.....	31
일본.....	31
한국.....	31
필리핀·호주·ASEAN.....	31
ASSESSMENT.....	31
11. 한반도.....	32
북한.....	32
한국과 한미동맹.....	32
위험평가.....	32
ASSESSMENT.....	32
12. 대만해협.....	33
중국의 옵션.....	33
미국·일본·대만.....	34
시나리오 분석.....	34
ASSESSMENT.....	34
13. 인도와 Global South.....	35
인도의 외교문법.....	35
Global South의 본질.....	35
지역별 경쟁.....	35
ASSESSMENT.....	35
14. 세계경제.....	36
주요 경제권.....	36
거시변수.....	36
ASSESSMENT.....	36
FORECAST.....	36

15. 국제금융.....	37
달러 패권.....	37
주요 위험.....	37
ASSESSMENT.....	37
FORECAST.....	37
16. 에너지·원자재·자원전쟁.....	38
핵심 전망.....	38
행위자별 전략.....	39
ASSESSMENT.....	39
17. 기술패권 경쟁.....	40
미국과 중국의 분야별 비교.....	40
AI와 지정학.....	41
반도체.....	41
ASSESSMENT.....	41
18. 군사력과 군비경쟁.....	42
주요국 비교.....	42
전쟁지속능력.....	42
ASSESSMENT.....	42
19. 핵무기와 전략적 억제.....	43
주요 핵보유국.....	43
중국과 북한, 이란의 의미.....	43
ASSESSMENT.....	43
20. 동맹과 국제블록.....	44
미국 중심 네트워크.....	44
중국과 Global South.....	44
ASSESSMENT.....	44
21. 국제기구.....	45

기관별 평가.....	45
ASSESSMENT.....	45
22. 정보전·사이버전·인지전.....	46
왜 중요해졌는가.....	46
주요 행위자.....	46
ASSESSMENT.....	46
23. 2026년 9월 국제정세 TOP 20.....	47
24. Global Risk Matrix.....	48
25. 향후 6개월 전망.....	50
26. 향후 1년 전망.....	51
27. 향후 3년 전망.....	52
28. 5~10년 세계질서 전망.....	53
29. 결론.....	54
A. 현재 국제정세를 한 문장으로 정의.....	54
B.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10개의 전략적 질문.....	54
C. 반드시 추적해야 할 20개의 지표.....	54
부록 1. 국가별 전략 프로필.....	56
미국.....	56
중국.....	56
러시아.....	56
EU.....	56
일본.....	56
한국.....	57
인도.....	57
이란.....	57
사우디아라비아.....	57
북한.....	57

중장기 통일·전면전 시나리오 평가.....	57
부록 2. 세계정세 관찰용 체크리스트	59
전쟁.....	59
에너지.....	59
금융.....	59
미중경쟁.....	59
동맹정치.....	59
기술.....	59
Global South.....	60
정보전.....	60
핵전략.....	60
산업동원.....	60
부록 3. 참고자료 목록 [R1] ~ [R40]	61
부록 4. 장별 핵심 판단 요약	63
1. Executive Summary.....	63
2. 2026년 9월 세계질서 한눈에 보기.....	63
3. Global Power Map.....	63
4. 미국의 세계전략.....	63
5. 중국.....	63
6. 미·중 전략경쟁.....	63
7.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64
8. 유럽과 NATO.....	64
9. 중동.....	64
10. 동아시아.....	64
11. 한반도.....	64
12. 대만해협.....	64
13. 인도와 Global South.....	65

14. 세계경제.....	65
15. 국제금융.....	65
16. 에너지·원자재·자원전쟁.....	65
17. 기술패권 경쟁.....	65
18. 군사력과 군비경쟁.....	65
19. 핵무기와 전략적 억제.....	66
20. 동맹과 국제블록.....	66
부록 5. 지역별 세부 시나리오 플레이북.....	67
유럽/우크라이나.....	67
중동/호르무즈.....	67
대만해협.....	67
한반도.....	68
남중국해.....	68
세계경제/금융.....	68
기술패권.....	68
에너지·광물.....	69
Global South.....	69
사이버·인지전.....	69
부록 6. 행위자별 목표·수단·제약 매트릭스.....	71
미국.....	71
중국.....	71
러시아.....	71
EU.....	71
일본.....	71
한국.....	71
북한.....	71
인도.....	71

이란.....	71
이스라엘.....	71
사우디.....	71
대만.....	71
부록 7. 2026년 9월~2027년 8월 월별 관찰 포인트	75
2026년 9월.....	75
10월.....	75
11월.....	75
12월.....	75
2027년 1월.....	76
2월.....	76
3월.....	76
4월.....	76
5월.....	76
6월.....	77
7월.....	77
8월.....	77
부록 8. 핵심 개념·용어 해설	78
De-risking.....	78
Decoupling.....	78
Friend-shoring.....	78
Selective decoupling.....	78
Extended deterrence.....	78
Escalation dominance.....	78
Gray-zone operations.....	78
A2/AD.....	79
Threshold state.....	79

Strategic ambiguity.....	79
Industrial mobilization.....	79
Dual-use technology.....	79
Cognitive warfare.....	79
Sanctions resilience.....	79
Weaponized interdependence.....	79
부록 9. 정책결정자용 실무 체크리스트	81
미국 전략.....	81
중국 경제.....	81
러시아 전쟁지속능력.....	81
유럽 재무장.....	81
중동 학전위험.....	82
대만해협.....	82
한반도.....	82
세계경제·금융.....	83
에너지·광물.....	83
기술패권.....	83
사이버·인지전.....	83
부록 10. 국가·지역별 심화 메모	85
미국.....	85
중국.....	85
러시아.....	85
우크라이나.....	85
독일.....	86
프랑스.....	86
영국.....	86
폴란드.....	87

튀르키예.....	87
이스라엘.....	87
이란.....	87
사우디아라비아.....	88
UAE.....	88
카타르.....	88
인도.....	88
일본.....	88
한국.....	89
대만.....	89
북한.....	89
ASEAN.....	89
부록 11. 분야별 심화 해설.....	91
미국 재정과 패권.....	91
중국 부동산과 성장모델.....	91
유럽 에너지 구조.....	91
반도체 공급망.....	91
AI와 전력.....	92
드론 혁명.....	92
제재와 경제전.....	92
해운과 보험.....	92
식량과 비료.....	93
기후와 안보.....	93
인구와 노동력.....	93
우주와 위성.....	93
부록 12. 전략적 논쟁과 쟁점별 확장 메모.....	94
미국 쇠퇴론은 과장되었는가?.....	94

중국은 미국을 추월할 수 있는가?	94
러시아는 약한가, 위험한가?	94
유럽은 미국 없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가?	94
이란은 실제 핵무장을 원하는가?	95
대만에서는 침공보다 봉쇄가 더 현실적인가?	95
달러 패권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95
AI는 세계경제에 생산성 혁명을 가져올 것인가?	95
인도는 진정한 제3국이 될 수 있는가?	96
Global South는 반서방 블록인가?	96
부록 13. 실무용 해석 프레임	97
정책결정자 프레임	97
투자자 프레임	97
언론인 프레임	97
연구자 프레임	97
기업가 프레임	98
안보 프레임	98
경제외교 프레임	98
역사 프레임	98
부록 14. 최종 실전 메모 — 무엇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00
1. 헤드라인보다 구조를 보라	100
2. 국가를 단독 행위자로 보지 말라	100
3. 전쟁은 전장 밖에서 결정되기도 한다	100
4. 경제는 안보의 도구가 되었다	101
5. 에너지와 금융은 가장 빠른 전이경로다	101
6. 확률과 영향을 분리하라	101
7. Global South는 제3세계가 아니라 협상공간이다	101
8. 좋은 분석은 요약이 아니라 우선순위 설정이다	102

1. Executive Summary

핵심 출처: [R1] [R3] [R5] [R7] [R8] [R9] [R11] [R14] [R16] [R21]

2026년 9월의 세계는 미국 중심 질서가 완전히 붕괴한 세계도 아니고, 중국이 이미 미국을 대체한 세계도 아니다. 더 정확한 묘사는 미·중 경쟁을 중심으로 하되 러시아의 군사적 수정주의, 중동의 지역 전쟁, 인도의 부상, Global South의 다중정렬, AI와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 달러 기반 국제 금융의 지속과 경제안보화가 겹쳐 있는 “충위형 비대칭 다극체제”다.

현재 국제정세를 움직이는 구조적 힘은 여섯 가지다. 첫째, 미국과 중국의 장기 전략경쟁이다. 둘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NATO 재무장이다. 셋째, 미국-이란 직접충돌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에너지 위험이다. 넷째, 공급망·관세·수출통제·산업정책으로 대표되는 경제안보화다. 다섯째, 생성형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드론, 우주, 사이버 영역을 포함한 기술전장화다. 여섯째, 재정압박과 고금리가 강대국 전략능력을 제약하는 금융구조다.

핵심 판단

미국은 여전히 최강의 군사·금융·기술·동맹 강국이며, 단기간에 대체될 가능성은 낮다.

중국은 제조업·공급망·조선·배터리·드론·희토류 가공에서 미국과 동맹국을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체제 경쟁자다.

러시아는 경제규모 면에서 미국·중국보다 작지만 핵전력, 자원, 전쟁동원능력, 지정학적 교란능력으로 국제질서를 바꿀 수 있다.

중동에서는 미국-이란 직접충돌이 2026년 하반기 세계 에너지와 인플레이션의 핵심 리스크로 부상했다.

유럽은 냉전 후 평화배당에서 재무장 시대로 들어섰으며, 미국의 선택적 개입 가능성이 그 변화를 더 가속한다.

인도와 다수의 Global South 국가는 미·중 어느 한편의 완전한 위성국이 되기보다 안보와 경제를 분리한 다중정렬을 선호한다.

전략적 함의

미국의 가장 큰 장점은 네트워크다. NATO, 미일동맹, 한미동맹, AUKUS, Quad, Five Eyes, 글로벌 달러 결제와 국제시장, 실리콘밸리와 연구대학, 글로벌 기지망을 동시에 가진 국가는 미국뿐이다. 그러나 미국의 가장 큰 제약 역시 미국 내부에서 나온다.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누적, 중동·유럽·인도태평양의 동시 부담, 국내정치 양극화는 패권의 운영비용을 높이고 있다.

중국의 장점은 규모와 산업심도다. 중국은 아직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금융질서를 제공하지 못하지만, 제조업 생태계의 밀도와 조선·배터리·전기차·태양광·드론 생산능력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반면 부동산 불황, 지방정부 부채, 인구감소, 약한 가계소비는 중국의 장기전략에 구조적 부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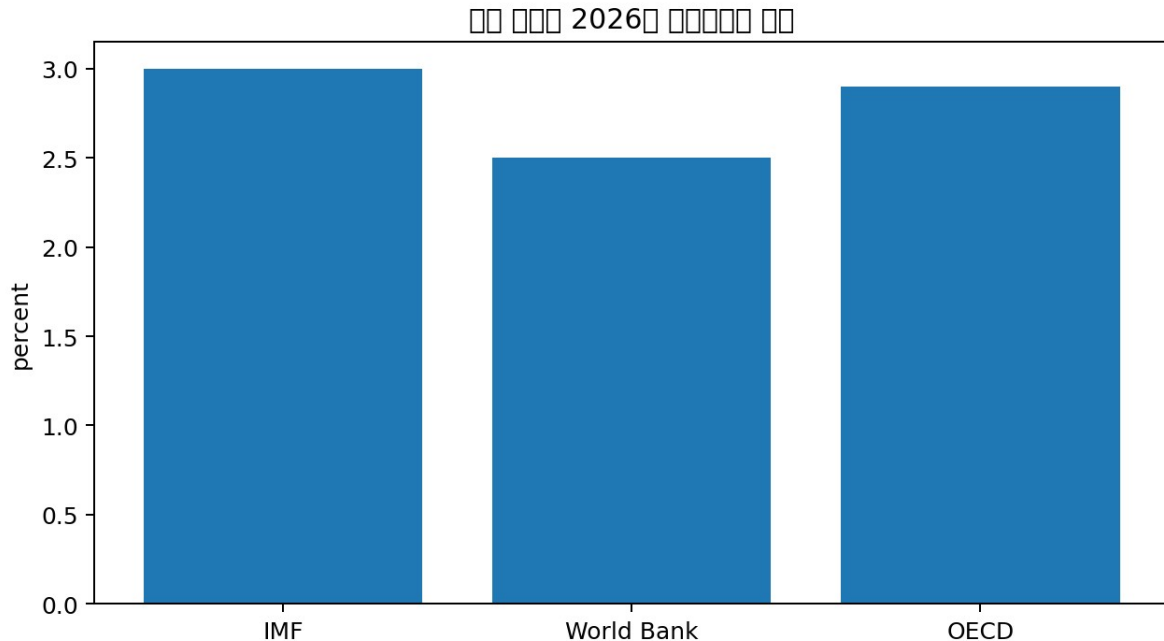
기본 전망

향후 6개월 동안 가장 현실적인 세계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선의 일부 이동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타결 없이 소모전이 계속된다. 미국-이란 충돌은 전면전과 불안정한 휴전 사이를 오가며 호르무즈 위험을 키운다. 미·중 관계는 대만해협에서 회색지대 경쟁을 지속하면서도 경제

·기술·관세 영역에서 더 분절된다. 시장 측면에서는 전쟁, 에너지, 고금리, AI 투자붐이 동시에 작동하여 “성장 둔화 + 자산시장 선택적 낙관”이라는 혼합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 2026년 9월 세계질서 한눈에 보기

핵심 출처: [R3] [R21] [R23] [R32] [R33] [R35]



전략 이해를 돕기 위한 편집 그래픽 또는 차트.

냉전 후 국제질서는 오랫동안 미국의 군사력, 달러, 해상지배, 국제기구 운영력, 기술우위, 동맹망에 의해 지탱되었다. 2026년에도 이 기반은 유효하지만 더는 독점적이지 않다. 중국은 제조업·기술·군사력과 Global South 외교를 결합해 미국 질서의 비용을 높이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유럽 안보구조를 장기적으로 흔들고 있으며, 인도·사우디·튀르키예·브라질·인도네시아 같은 중견국은 다중정렬을 통해 자율성을 키우고 있다.

현재 국제체제를 설명하는 데 가장 유용한 모델은 “단극체제의 잔존 + 양극경쟁의 심화 + 다극행위자의 확대”라는 복합모델이다. 군사투사력과 동맹정치에서는 미국 우위, 제조업과 일부 물적 생산에서는 중국 우위, 핵전략에서는 미·러 중심에 중국이 급부상, 에너지와 자금에서는 걸프국가와 유럽·아시아 소비권이 상호의존하는 식이다.

구조적 특징

세계화는 후퇴라기보다 재설계되고 있다. 효율성 중심 공급망에서 회복탄력성과 국내생산, 동맹생산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다.

경제와 안보의 경계가 흐려졌다. 관세, 수출통제, 제재, 산업보조금, 투자심사가 모두 전략수단이 되었다. 전쟁의 문법이 바뀌었다. 드론, 전자전, ISR, 위성, 소프트웨어, 산업생산속도가 탱크·전투기 숫자만큼 중요하다.

정보공간은 독립된 전장이 되었다. 선전, 허위정보, 인지전, 선거개입, 사이버공격이 평시에도 계속된다. 국제기구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강대국을 제어하기보다 강대국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플랫폼 성격이 강해졌다.

FACT

IMF는 2026년 세계성장률을 약 3.0%로 본다. World Bank는 더 낮은 약 2.5%를 예상한다. 기관별 편차는 있지만 공통점은 고성장보다 낮은 성장, 지정학적 변동성, 재정압박, 통화정책 정상화의 더딘 속도다. [R3] [R21]

NATO는 국방지출과 broader security investment를 합해 GDP의 5%를 장기목표로 설정했고, 유럽의 군사비는 계속 늘고 있다. [R4] [R5] 미국과 이란의 교전, 호르무즈 긴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는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을 상시화한다. [R7] [R8] [R9]

ASSESS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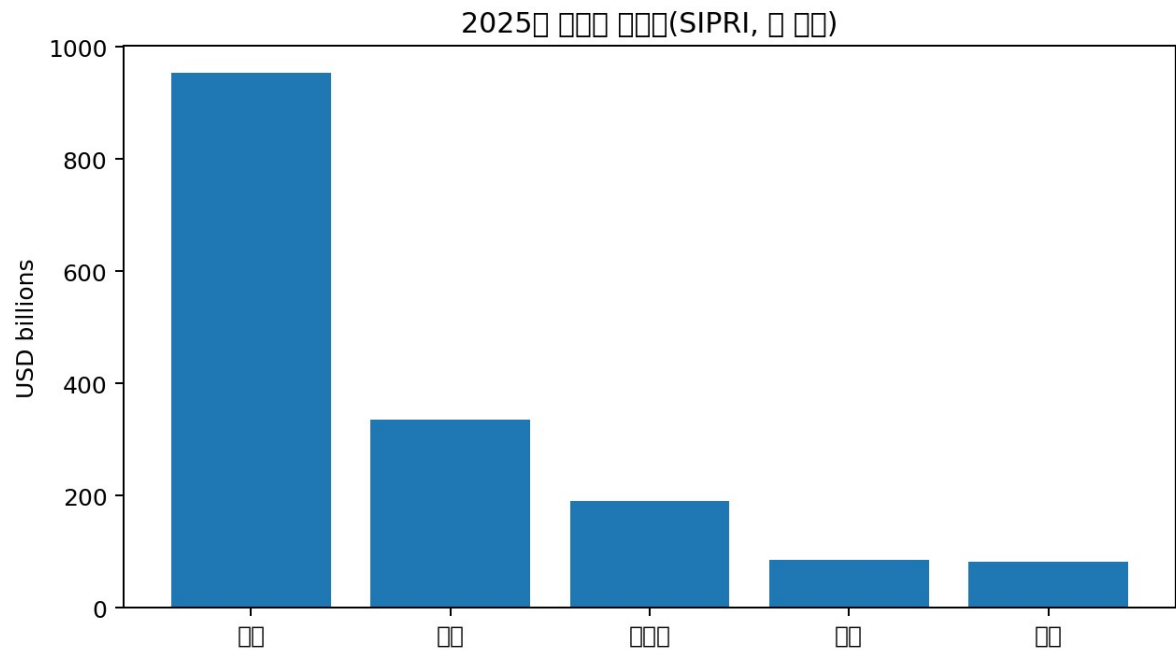
‘새로운 냉전’이라는 표현은 일정 부분 유효하지만 불완전하다. 냉전형 요소는 미·중 전략경쟁과 미·러 군사대치, 기술통제, 진영정치에서 강해졌다. 그러나 오늘의 세계는 냉전기와 달리 깊게 상호의존되어 있고, 다수의 국가가 양자택일을 거부한다. 따라서 현재 세계는 “완전한 블록분리”가 아니라 “부분적 블록화와 네트워크 재편”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FORECAST

향후 1~3년 동안 세계질서는 세 방향으로 갈라질 수 있다. 첫째, 미국 우위가 유지되면서 동맹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경로. 둘째, 미·중 신냉전이 더 굳어지며 공급망과 기술이 분절되는 경로. 셋째, India·EU·중견국이 더 큰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실질적 다극성이 커지는 경로다. 현실에서는 이 세 경로가 동시에 섞여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3. Global Power Map

핵심 출처: [R5] [R6] [R21] [R31] [R35]



전략 이해를 돕기 위한 편집 그래픽 또는 차트.

글로벌 권력지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사, 경제, 금융, 기술, 에너지, 외교네트워크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 전체 국력은 단일 지표로 환산되지 않는다. 예컨대 중국은 제조업과 조선·배터리에서 압도적이지만 달러를 대체할 금융질서를 제공하지 못한다. 러시아는 경제규모가 작지만 핵전력과 에너지·미사일, 전쟁동원력으로 큰 전략효과를 낸다. EU는 단일 국가가 아니어서 군사통합이 약하지만 규제력과 시장 규모는 막강하다.

행위자별 요약

행위자	주요 강점	핵심 약점	전략적 방향
미국	군사투사력·달러·AI·동맹·자본시장	재정·부채·정치양극화	중국 억제와 동맹 부담 분담
중국	제조업·공급망·미사일·조선	부동산·인구·금융패권 부족	장기적 세력균형과 자립화
러시아	핵전력·자원·전쟁동원	경제규모·기술·인구	영향권 유지와 서방 견제
EU	시장·규제력·산업·통화	군사통합 부족	전략자율성과 재무장
인도	인구·성장·지리·핵전력	인프라·행정역량	다중정렬을 통한 강대국화
걸프국가	에너지·국부펀드·자본	군사적 취약성	안보는 미국, 경제는 다변화

세계 권력의 층위

군사투사력: 미국 > 중국 > 러시아 > 주요 동맹국 연합.

핵전략: 미국·러시아 중심, 중국 급부상, 지역핵보유국 다변화.

제조업: 중국 중심, 미국·독일·일본·한국이 핵심기술과 고부가가치 부문 보유.

국제금융: 미국의 달러·국채·규제력 우위 지속.

자원·에너지: 미국·걸프·러시아·아프리카·호주·중남미가 상호의존적 공급망 형성.

외교네트워크: 미국은 동맹, 중국은 경제권, 인도는 다중정렬, 러시아는 파괴적 영향력이라는 각기 다른 자산을 보유.

Global Power Map의 핵심은 “누가 더 강하냐”보다 “어느 분야에서 누구에게 의존하느냐”다. 세계 각국은 안보는 미국, 무역은 중국, 에너지는 걸프·러시아·미국, 기술은 미국·대만·일본·한국, 자원은 아프리카·호주·라틴아메리카에 걸쳐 의존한다. 이 얽힘 자체가 현대 지정학의 본질이다.

4. 미국의 세계전략

핵심 출처: [R1] [R2] [R16] [R26] [R30] [R39]

2026년 미국의 대외전략은 “동맹을 유지하되 비용을 더 분담시키고, 직접 개입보다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국을 억제하는 전략”으로 요약된다. 국방전략의 핵심은 중국을 장기적 도전으로, 러시아를 급성 위협으로, 이란·북한을 지역 교란자로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다. 미국은 First Island Chain에서의 denial defense, 본토 방어, 우주·사이버·미사일방어 강화, 동맹국의 군수품·기지·훈련·방산 역할 확대를 중시한다. [R1]

대중국 전략

경제·기술 차원에서 미국은 반도체 장비, 고급 AI 칩, 클라우드 접근, 투자심사, 관세와 공급망 재편을 결합해 중국의 군민융합을 제약하려 한다. 군사적으로는 일본·필리핀·호주·괌·마리아나·하와이로 이어지는 기지망을 강화하고, 대만 유사시 직접 또는 간접 개입에 대비한 억지력을 키운다. 외교적으로는 ASEAN, Quad, AUKUS, 미일한 협력, 필리핀과의 접근협정을 활용한다.

대러시아·우크라이나 정책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정보·재정 지원을 유지하되, 유럽이 더 큰 부담을 지도록 압박한다. 2026년 들어 미국 내부에서는 무기재고, 우크라이나 지원의 한계효과, 협상 시점 등에 대한 논쟁이 커졌다. [R30] 미국의 현실적 목표는 러시아의 추가 팽창을 막으면서 유럽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지, 반드시 단기간에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붕괴시키는 것은 아니다.

중동 정책

중동에서 미국은 이스라엘 방어, 이란 억지, 해상교통로 보호, 동맹국 방어를 동시에 추구한다. 그러나 미국-이란 전쟁은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빼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보여준다. 인도태평양에 집중하려던 전략은 호르무즈와 홍해 위기 앞에서 반복적으로 분산된다. [R7] [R8]

경제안보·무역·산업정책

미국의 산업정책은 더 이상 경제정책에 머물지 않는다. 반도체, 청정에너지, 전기차 공급망, 광물, 조선, 바이오, 데이터센터 전력은 모두 국가안보와 연결된다. 관세와 수출통제, 보조금, Buy American, 공급망 우호화(friend-shoring)는 전략도구다. 이는 자유무역의 후퇴이자, 미국식 국가자본주의 요소의 강화로 볼 수 있다.

미국 패권의 능력과 의지

능력: 매우 높음. 달러, 국채, 해군, 핵전력, AI·연구생태계, 동맹이라는 조합은 여전히 압도적이다.
 의지: 선택적. 미국은 모든 지역 분쟁을 직접 관리하기보다 동맹부담분담과 지역 파트너를 활용하려 한다.
 핵심 제약: 재정적자, 부채, 다중전구 부담, 국내정치 분열.
 핵심 강점: 위기 때 동맹과 시장이 여전히 미국 쪽으로 쏠린다는 점.

FORECAST

향후 1~3년 미국 전략의 성패는 세 가지에 달려 있다. 첫째, 중국 견제에 필요한 군사·산업자원을 유럽·중동 부담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둘째, 국가부채와 높은 장기금리가 전략재원을 잠식하는 속도. 셋째, 동맹국들이 미국 요구에 맞춰 실제로 더 많은 방위비와 산업역량을 제공할 것인가다.

5. 중국

핵심 출처: [R3] [R14] [R28] [R31] [R35]

중국은 2026년에도 미국 다음의 세계 2위 강대국이지만, 그 힘은 미국과 다른 구조에서 나온다. 핵심은 거대한 제조업 기반과 국가동원능력, 대규모 인프라, 수출경쟁력, 공급망의 밀도, 미사일과 드론 중심의 지역군사력이다. 반면 중국은 글로벌 동맹망이 약하고, 금융개방과 법적 신뢰, 기축통화 능력, 인구구조, 부동산과 지방재정에서 중요한 제약을 가진다. [R3] [R28]

정치·외교

정치적으로 중국은 중앙집권적 통제와 장기전략의 일관성을 장점으로 삼는다. 대외적으로는 “반패권”, “Global South 연대”, “주권 존중”을 내세워 미국 중심 질서에 대한 대안 이미지를 구축하려 한다. Belt and Road Initiative는 과거보다 속도가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지정학적 정착제 역할을 한다. BRICS 확대, SCO, 중동·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외교는 중국의 영향력을 넓히는 도구다.

경제

중국 경제의 최대 강점은 산업정책의 성과다.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드론, 조선, 희토류 가공, 중간재 공급망에서 중국은 압도적이다. 그러나 성장엔진은 과거의 부동산·인프라 중심에서 첨단제조와 수출 중심으로 이동했고, 이는 내수 부진과 청년고용 문제를 동반한다. IMF는 2026년 중국 성장률을 중반 4%대로 본다. [R3]

군사

PLA 현대화의 핵심은 원양해군보다 우선적으로 미국이 서태평양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A2/AD(anti-access/area denial) 체계다. 장거리 정밀미사일, 대함전력, 방공망, 우주·사이버, 드론·무인체계가 여기에 결합한다. 중국은 미국처럼 전세계에 병력을 전개하는 군대가 아니라, 자국 주변 해양과 1·2 도련선에서 상대의 행동반경을 줄이는 군대를 우선 구축해 왔다.

중국의 전략적 강점과 약점

영역	강점	약점
제조업	완결형 공급망, 규모경제, 국가 보조	서방의 탈중국화 압력
기술	AI·통신·드론·배터리 추격	최첨단 반도체 장비 제약
군사	미사일·조선·드론·인근전장 우세	실전경험과 글로벌 병참 부족
금융	거대 외환보유고, 국유금융 통제	자본통제, 달러 대체 한계
외교	Global South 접근, 비서구 담론	동맹부족, 주변국 경계심

FORECAST

향후 수년간 중국은 세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첫째, 미국과의 직접전쟁을 피하면서 주변 해양에서 강압력을 높인다. 둘째, 첨단기술·에너지·식량의 자립도를 높인다. 셋째, 국제통화질서를 뒤집기보다 위안화 결제와 비달러 거래를 선택적으로 확대한다. 중국의 장기위험은 외부보다 내부, 즉 성장모델 전환의 어려움일 수 있다.

6. 미·중 전략경쟁

핵심 출처: [R1] [R2] [R11] [R12] [R14] [R24] [R32]

2026년 국제정세의 중심축은 미·중 경쟁이다. 이 경쟁은 단순한 무역분쟁이 아니라 군사·경제·기술·금융·외교 전장을 동시에 포함하는 체제경쟁이다. 동시에 양국은 완전히 분리된 적대블록도 아니다. 거대한 무역, 자본, 기술, 교육, 공급망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표현은 ‘상호의존적 전략경쟁’이다.

군사 경쟁

군사영역에서 핵심 쟁점은 대만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 1도련선, 우주·사이버, 해저케이블과 위성 ISR이다. 미국은 항모, 잠수함, 폭격기, 동맹기지망과 정보우위를 활용하고, 중국은 지리적 인접성, 미사일 밀도, 조선능력, 대량드론, 해경·민병대를 결합한다. 전면전 가능성은 낮지만 위기빈도는 높아지는 구조다.

경제 경쟁

경제영역에서 경쟁의 핵심은 공급망과 산업정책이다. 미국은 관세, 투자심사, 공급망 우호화, IRA/CHIPS 류 산업정책, 첨단기술 통제를 동원한다. 중국은 대규모 내수시장, 보조금, 희토류·배터리·태양광·드론 공급망, 국유금융을 활용한다. 탈세계화가 아니라 재편이라는 표현이 적합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술 경쟁

기술전쟁은 반도체, AI, 양자, 통신, 클라우드, 우주, 드론, 첨단제조, 생명공학을 포함한다. 미국은 선도 혁신·연구대학·벤처캐피털·소프트웨어·데이터센터에서 우위가 크다. 중국은 응용속도, 대규모 시장, 제조업 적응능력, 국가동원에서 강점을 갖는다. 최첨단 칩과 EUV 장비는 여전히 미국권·동맹권 우위이지만, 중국은 mature node와 시스템 수준 통합에서 추격 중이다. [R14] [R24]

금융 경쟁

달러 패권은 여전히 강력하다. 위안화 국제화가 진전돼도 자본통제와 법제도 문제 때문에 달러를 대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국이 금융제재와 달러 인프라를 전략도로 사용할수록 다수 국가는 비달러 결제 다변화를 추구한다. 현실적인 변화는 Dollar replacement가 아니라 Dollar diversification이다.

외교 경쟁

외교전장에서 중국은 BRICS·SCO·BRI·아프리카·중남미·중동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미국은 동맹·G7·NATO·Quad·AUKUS·개발금융·제재정책을 활용한다. Global South에서는 ‘누가 더 많은 이념적 호소력을 갖느냐’보다 ‘누가 더 좋은 거래를 제공하느냐’가 중요하다.

SCENARIO

관리된 경쟁: 위기관리 채널이 유지되고 충돌은 제한되며 경제분절만 심화.

신냉전 고착: 기술·금융·무역이 더 블록화되고 군사적 상호불신이 확대.

대만 위기 중심의 급격한 악화: 봉쇄·제재·군사충돌이 맞물리는 경로.

경쟁 속 부분협력: 기후, 금융안정, 해상안전, 군통제 일부 분야에서 기능적 협력 복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로는 관리된 경쟁과 신냉전 고착의 중간, 즉 잦은 위기와 제한적 소통이 공존하는 장기 소모형 경쟁이다.

7.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핵심 출처: [R5] [R9] [R10] [R30] [R31] [R40]



전략 이해를 돕기 위한 편집 그래픽 또는 차트.

2026년 9월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속전속결의 기동전이 아니라 장기 소모전·산업전이다. 전선에서는 러시아의 제한적 전진과 우크라이나의 방어 및 국지적 반격이 병존하며, 결정적 돌파는 쉽지 않다. 핵심은 병력 수보다 탄약, 드론, 정찰, 전자전, 방공, 수리·보급, 산업생산 속도다.

전선 상황

동부와 남부 전선은 여전히 핵심전장이다. 러시아는 장거리 활공폭탄, 포병, 드론, 인력 우위를 활용해 우크라이나 방어를 점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 장거리 타격, 방어축선 공고화, 주요 거점 방어로 대응한다. 독립분석과 당사자 발표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점령지 수치보다는 전반적 추세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 [R9]

무기·탄약·드론전

전쟁의 상징적 특징은 드론의 대량화다. 정찰드론, FPV 자폭드론, 해상무인정, 장거리 공격드론이 포병·기갑·방공과 결합한다. 양측 모두 전자전과 재밍에 적응하며 비용대비효과를 높이고 있다. 드론은 전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포병의 생존성을 낮추며, 후방 인프라 타격 능력을 확장한다.

경제전과 산업동원

러시아는 전시경제와 자원수출, 국방산업 증산으로 전쟁지속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력 부족, 높은 국방비 비중, 에너지 인프라 피격, 장기 성장잠재력 저하는 비용이다. [R10]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 없이는 장기지속이 어렵지만, 방산 공동생산과 드론 혁신을 통해 일부 자율성을 키우고 있다.

각 행위자의 목표

행위자	전쟁목표	협상목표
러시아	현재 점령지 유지·확대, 우크라	점령지의 정치적 인정 또는 사

	이나 군사력 제한, NATO 확장 저지	실상의 동결
우크라이나	국가주권 유지, 추가 영토 상실 방지, 서방 안보보장	휴전선의 안정화와 장기 억지장치 확보
미국	유럽 안보와 러시아 억제, 우크라이나 붕괴 방지	관리 가능한 휴전 또는 동결분쟁
유럽	동유럽 안보, 난민·에너지 충격 관리, 방산확대	미국 이탈 시에도 지속 가능한 방위구조 확보

시간대별 전망

6개월: 전선의 제한적 이동, 장거리 타격 확대, 협상탐색 지속.

1년: 휴전 또는 동결분쟁 가능성은 있으나 정치적 평화조약 가능성은 낮음.

3년: 유럽의 방산생산과 우크라이나의 내구성, 러시아 경제의 누적피로가 핵심 변수.

ASSESSMENT

이 전쟁은 현대전의 교과서를 바꿨다. 정밀무기보다 값싼 드론, 전술적 적응속도, 민간기술 동원, 산업 생산, 외부지원 체제가 승패에 결정적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동시에 핵보유국의 재래식 침공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8. 유럽과 NATO

핵심 출처: [R4] [R5] [R30] [R36]

유럽의 전략환경은 구조적으로 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위협은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장기 구조로 인식되고 있다. NATO는 집단방위를 재강조하고, 유럽 각국은 탄약·미사일·방공·장갑차·드론·조달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유럽 안보공약이 선택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인식은 유럽 재무장을 더욱 자극한다.

주요 국가 동향

독일: Zeitenwende 이후 방산조달·탄약·방공·우크라이나 지원 및 공동생산 확대.

프랑스: 전략자율성과 핵억지, 유럽 방산주도권을 중시.

영국: NATO 핵심군사력, 잠수함·정보·원정전력 유지.

폴란드: 러시아 억지의 전진국가. 고강도 재무장과 대미안보협력 심화.

북유럽·발트: NATO 확장 효과와 대러 방어 집중.

EU: 공동조달, 방산금융, 경제안보 정책을 통해 군사산업 기반을 강화.

NATO의 변화

NATO의 과제는 단순한 병력 숫자가 아니다. 준비태세, 병참, 철도·항만 이동, 통합지휘, 탄약재고, 공중·미사일 방어, 산업기반이 핵심이다. 5% commitment는 상징적 숫자 그 이상이다. 유럽이 안보를 미국 외주에서 점차 부분적 자립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뜻한다.

FORECAST

미국이 유럽 병력을 급격히 줄일 가능성은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지만, 미국이 중국 억제를 우선하는 한 유럽은 더 많은 자가방위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NATO의 부담을 재균형하고, 동시에 EU의 방위산업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9. 중동

핵심 출처: [R7] [R8] [R17] [R25] [R27] [R40]

2026년 중동은 세계정세의 가장 위험한 결절점 가운데 하나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미국-이란 직접충돌, 이란 핵문제, 걸프 에너지, 홍해와 호르무즈 해상교통, 튀르키예의 전략자율성, 사우디와 UAE의 다변화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얽혀 있다. 중동은 더 이상 주변 전장이 아니라 세계 인플레이션·금리·에너지·해상보험·외환시장에 직접 연결되는 중심 전장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가자지구는 전면전에서 불완전한 휴전과 저강도 충돌 단계로 이동했지만, 정치적 해결은 멀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팔레스타인 문제의 정치적 해결 구조는 여전히 취약하다. 전쟁의 인도주의적 비용과 지역 반미·반이스라엘 정서는 중동정치의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이란과 핵문제

이란은 미사일·드론·대리세력 네트워크·해협 통제 가능성으로 미국과 동맹국을 압박한다. 동시에 핵 프로그램은 시설 피해와 검증 공백 속에서 더 불투명해졌다. IAEA 접근이 제한될수록 국제사회는 실제 재고와 농축 상태를 더 불확실하게 파악할 수밖에 없다. [R17]

미국-이란 직접충돌

2026년 9월 초 미국과 이란은 7월 이후 가장 강한 수준의 공격을 주고받았다. 이란은 미군기지와 해상교통로를 위협하고, 미국은 IRGC 관련 표적과 해상자산을 타격하며 억지를 시도한다. [R7] 핵심 변수는 전면 정권교체전이 아니라 제한전·강압전·보복사이클이 얼마나 길어질지다.

걸프·홍해·에너지

호르무즈와 바브엘만데브는 세계 석유·가스 시장의 신경절이다. 에너지 인프라가 위협받으면 단순히 원유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운송지연, LNG 방향전환, 유럽·아시아 전력가격, 식량비용, 통화정책 기대까지 변한다. [R8] [R25] [R27]

주요 행위자별 전략

행위자	전략 핵심
이스라엘	이란 억지, 대리세력 약화, 국내안보 우선
이란	정권생존, 억지력 유지, 핵옵션 보존, 미군 축출 압박
사우디	에너지 안정과 투자다변화, 미국 안보우산 유지
UAE·카타르	금융·물류·에너지 허브 유지, 미중 균형
튀르키예	NATO 안의 자율성, 중동·홍해 영향력 확대
미국	해상교통 보호, 이란 억지, 이스라엘 방어, 확산 관리

지역전쟁 가능성

ASSESSMENT: 중동의 대규모 지역전쟁은 미래 가능성만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미 진행 중이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핵심 질문은 ‘전쟁이 있느냐’가 아니라 ‘전쟁이 어느 수준에서 통제되는가’다. 국가대 국가의 정규전, 대리세력 전, 해상전, 에너지전, 사이버전이 얹혀 있어, 제한적 충돌도 세계경제에는 매우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FORECAST

향후 6개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호르무즈 통과량과 LNG 흐름, 미군기지 피격 빈도, 이란 핵검증 접 근성, 이스라엘-레바논 전선의 재점화 여부다. 군사적으로는 제한전 지속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Impact 기준으로는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

10. 동아시아

핵심 출처: [R1] [R11] [R20] [R37] [R38]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통합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다.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북한, 미국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대만해협, 한반도, 필리핀해가 하나의 안보공간을 이룬다.

일본

일본은 방위비 확대, 반격능력 확보, 탄도미사일방어, 남서도서 방어, 미일동맹 심화를 통해 전후 안보 정책의 역사적 전환을 진행 중이다. [R37] 일본의 전략은 단지 자국방어가 아니라, 미군과 함께 지역 억지체계의 적극적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한국

한국은 한미동맹을 안보의 중심축으로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관계, 일본과의 안보협력, 북한 억지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한국의 방산생산능력, 조선, 반도체, 미사일 능력은 동북아 전략환경에서 점점 더 중요한 자산이 된다. [R38]

필리핀·호주·ASEAN

필리핀은 남중국해 문제를 통해 미중 경쟁의 전선으로 더 깊게 들어왔고, 호주는 AUKUS와 장거리 타격·잠수함 협력을 통해 장기 억지에 기여한다. ASEAN은 미중 경쟁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려 하지만, 해양안보와 공급망 문제 때문에 각국의 선택은 점점 분화되고 있다.

ASSESSMENT

동아시아의 핵심은 미국의 동맹망이 실제 작동하는가, 그리고 중국이 이를 분리·약화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다. 즉 지역 질서는 군사력만이 아니라 신뢰, 기지 접근, 공중·해상 공역관리, 경제의존, 내부정치가 결합해 결정된다.

11. 한반도

핵심 출처: [R18] [R19] [R31] [R38]

한반도는 2026 년에도 핵위기와 관리된 역지가 병존하는 지역이다.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체제생존의 핵심보장으로 보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협력 심화는 북한의 전략적 공간을 넓혀 준다. 중국은 한반도 불안정 자체는 원하지 않지만,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보다 급변사태 방지와 전략적 완충을 선호한다.

북한

북한의 군사전략은 핵무기, 장사정포, 단거리·중거리 미사일, 특수전, 사이버, 회색지대 도발을 결합한 비대칭 역지다. 북러 협력은 탄약·기술·정치적 후원을 통해 북한의 협상지렛대를 키운다. [R18]

한국과 한미동맹

한국은 확장역지 강화, 미사일방어, 미일안보협력, 대북대화 가능성 탐색이라는 네 개의 축을 동시에 운용한다. [R19] 한국의 과제는 위기를 고조시키지 않으면서도 북한이 오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위험평가

시나리오	가능성	영향
미사일 시험 및 무력시위	높음	중간
해상·DMZ 국지충돌	중간	중간~높음
대규모 군사위기	낮음~중간	매우 높음
전면전	낮음	파국적
핵무기 실제 사용	매우 낮음	파국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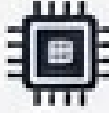
ASSESSMENT

한반도에서 가장 현실적인 위험은 의도적 전면전보다 단계적 확전이다. 도발 → 오판 → 보복 → 재보복의 사다리가 짧아질수록 위기관리 채널의 중요성이 커진다. 북한은 전면전을 원하지 않아도 강압외교를 위해 지속적으로 긴장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12. 대만해협

핵심 출처: [R11] [R12] [R13] [R24] [R29]

● 향후 1~3년은 국제질서의 향방을 결정할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다.

				
전략경쟁	안보위기	경제불안	기술패권	에너지전쟁

4

11. 대만해협 시나리오 분석



시나리오	개요	발생 가능성	영향도

전략 이해를 돕기 위한 편집 그래픽 또는 차트.

대만 문제는 단지 양안문제가 아니라 21세기 세계질서의 가장 위험한 군사·경제 교차점이다.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미중 관계, 일본 안보, 반도체, 해운, 보험, 금융시장, 글로벌 제조업이 동시에 흔들린다. 중국의 목표는 통일을 장기목표로 유지하되, 당장의 비용과 미국 개입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 강압을 우선하는 것이다.

중국의 옵션

회색지대 압박: 항공기·함정·해경·민병대 상시활동, 정보전, 사이버전, 경제강압.

Quarantine/inspection: 법집행 명분을 내세운 부분적 통제.

해상봉쇄: 상업해운과 에너지 흐름 차단을 통한 정치적 굴복 압박.

제한타격: 군사시설 또는 지휘통제체계에 대한 국지공격.

전면침공: 가장 비용이 크고 성공보장이 낮은 최후옵션.

미국·일본·대만

미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지만 실질적 억지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일본은 대만 유사시 자국 안보와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미일작전지원과 남서도서 방어를 중시한다. 대만은 해상봉쇄와 회색지대 압박을 염두에 둔 비대칭 방어, 동원, 인프라 복원력, 반도체 산업의 지속성을 강화하고 있다.

[R29]

시나리오 분석

시나리오	가능성	주요 결과
현상유지+압박증가	매우 높음	군사활동 상시화, 경제심리 악화
중국의 해상봉쇄	중간	대만 경제 충격, 미중 확전위험 급상승
제한 군사충돌	낮음~중간	금융시장 급락, 동맹개입 압박
전면침공	낮음	세계경제와 안보질서 재편
미중 직접전쟁	낮음	파국적 글로벌 충격

ASSESSMENT

봉쇄는 침공보다 현실적이지만 무위험 선택은 아니다. 오히려 봉쇄는 장기화될수록 미국과 동맹국의 개입 명분을 키우고, 세계경제에 즉각 충격을 준다. 따라서 중국이 전면침공 대신 회색지대와 점증적 강압을 선호하는 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13. 인도와 Global South

핵심 출처: [R15] [R20] [R21] [R35]

인도는 2026년 세계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상승 행위자 가운데 하나다. 높은 성장률, 인구, 인도양 위치, 핵보유국 지위, 미국·러시아·Global South 모두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외교적 유연성이 인도의 강점이다. [R15] 인도는 미중 경쟁 속에서 미국의 자연스러운 파트너이지만, 공식 동맹국이 되지는 않으려 한다.

인도의 외교문법

- 미국과는 기술·안보·공급망 협력 강화.
- 러시아와는 에너지와 방산협력 유지.
- 중국과는 국경경쟁을 관리하면서 경제관계는 선별적으로 유지.
- BRICS, G20, Global South 담론을 통해 제3국 이미지를 강화.
- 인도양과 중동, 아프리카 연결축에서 자국 영향력 확대.

Global South의 본질

Global South는 단일 블록이 아니다. 오히려 미국·중국·러시아·유럽 사이에서 거래조건을 최적화하려는 국가들의 집합이다. 동남아시아는 공급망과 해양안보 때문에 미중 균형을 추구하고, 중앙아시아는 러시아·중국·튀르키예·인도의 경쟁장으로 변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중남미는 자원·인프라·식량·금융을 둘러싼 다중경쟁의 공간이 되었다.

지역별 경쟁

지역	미국	중국	러시아·유럽
동남아시아	안보·해양질서	무역·인프라·제조이전	유럽 규제력, 러시아 영향 제한
중앙아시아	제한적 존재	경제·인프라 우위	러시아 전통영향 지속
아프리카	개발금융·안보협력	인프라·광물·제조투자	러시아 안보·유럽 개발 협력
중남미	재접근 시도	무역·원자재	유럽 투자
중동	안보관여	경제·에너지 외교	러시아 군사외교와 유럽 에너지수요

ASSESSMENT

Global South의 핵심행동원리는 이념보다 실용이다. 다수 국가는 미·중 경쟁에서 줄서기보다, 안보는 미국, 무역은 중국, 에너지는 러시아·걸프, 기술과 금융은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이 다중정렬은 향후 세계질서를 완전한 양극화로 가는 것을 막는 중요한 힘이다.

14. 세계경제

핵심 출처: [R3] [R21] [R22] [R23] [R40]

2026년 세계경제는 느린 성장과 높은 지정학적 변동성, AI·데이터센터 중심의 선택적 투자붐, 고금리와 재정부담이라는 상반된 힘이 동시에 작동하는 국면이다. 세계경제는 2000년대식 광범위한 세계화 호황으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완전한 침체에도 빠지지 않았다.

주요 경제권

경제권	주요 강점	주요 부담
미국	소비·AI 투자·달러·자본시장	재정적자·고금리·부채
중국	제조업·수출·산업정책	부동산·내수부진·인구
유럽	고부가 제조·규제·서비스	에너지비용·낮은 성장
일본	기업개혁·기술력	인구감소·엔화 변동성
인도	고성장·인구	인프라·행정역량

거시변수

인플레이션은 2022~2024년 고점 대비 낮아졌지만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다. 에너지 쇼크가 재발할 경우 중앙은행의 완화 여지를 제약한다. 국가부채와 기업부채는 금리 상승기에 더 부담스러워졌고, 무역과 공급망은 관세와 제재, 지정학적 위험에 더 민감해졌다.

ASSESSMENT

세계경제를 단순한 경기순환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구조적 지정학이 성장과 인플레이션의 함수를 바꾸기 때문이다. 값싼 러시아 에너지, 중국의 무한한 부동산투자, 초저금리, 규제 완화라는 과거 성장조건은 상당 부분 끝났다. 대신 AI, 방산, 에너지 인프라, 반도체, 전력망, 광물이 새 투자축이 되었다.

FORECAST

기본 시나리오는 저성장·고변동성이다. 다만 AI·클라우드·전력·반도체 관련 투자와 일부 자산시장은 계속 강할 수 있다. 주요 하방위험은 중동 에너지 충격, 미중 무역전쟁 심화, 중국의 금융불안, 미국 장기금리 급등이다.

15. 국제금융

핵심 출처: [R16] [R22] [R26] [R34] [R39]

국제금융의 중심은 여전히 미국이다. 달러는 준비통화, 무역결제, 부채발행, 안전자산, 제재수단이라는 다중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미국 국채시장과 연준의 정책신호는 모든 국가의 금리, 환율, 자본흐름에 영향을 준다. 2026년 9월 현재 미국 국가부채가 40 조 달러를 넘은 사실은 달러질서의 강점과 취약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R26]

달러 패권

달러의 강점은 단순한 경제규모가 아니라 시장심도, 법적 안정성, 군사력, 동맹, 제재집행력, 결제인프라에 있다. 위안화가 부분적으로 국제화되어도 아직 달러를 대체할 정도의 신뢰와 개방성을 제공하지 못한다. 유로화와 엔화 역시 지역적 중요성은 크지만 글로벌 안전자산의 중심을 바꾸지는 못한다.

주요 위험

미국 재정·부채 부담과 이자비용 상승.
중국 부동산·지방정부·금융권 스트레스.
전쟁 또는 제재가 유가·물가·채권금리로 전이되는 경로.
달러유동성 경색과 신흥국 자본유출.
은행시스템의 금리·상업용부동산 노출.

ASSESSMENT

미국의 부채 확대가 곧바로 달러 패권 붕괴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전략재정과 복지재정의 충돌, 더 높은 실질금리, 민간투자 구축효과를 통해 패권의 비용을 높일 수 있다. 금융전쟁 측면에서는 미국의 제재력과 달러중심 결제가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이를 과도하게 사용할수록 탈달러 동기를 자극한다.

FORECAST

향후 수년간 국제금융은 ‘달러 지속 + 점진적 다변화’가 기본경로다. 가장 중요한 관전포인트는 U.S. 10Y yield, DXY, USD/CNY, 중국 자본유출입, 원유결제 통화 변화, 제재회피 결제 네트워크의 성장 속도다.

16. 에너지·원자재·자원전쟁

핵심 출처: [R8] [R25] [R27] [R35]

주요 무기	드론, 장거리 미사일, 전자전 장비
지원	서방의 지속적 무기·재정 지원
경제전	러시아 제재 지속, 우회 수출 확대
협상 가능성	제한적, 상호 조건 격차 큼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유럽
전쟁 목표	우크라이나 비무장화 영토 확보(4개주)	영토 회복 주권 수호	우크라이나 지원 러시아 약화
협상 목표	영토 일부 인정 중립화 보장	안보 보장 영토 일부 타협 가능	공정한 평화 유럽 안보 안정

26

15. 에너지·자원 전략 지도



전략 이해를 돕기 위한 편집 그래픽 또는 차트.

에너지와 자원은 국제정치의 부속변수가 아니라 전략의 중심축이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여전히 산업과 군사의 혈관이며, 우라늄·희토류·리튬·구리·니켈·코발트는 에너지전환과 첨단제조, 반도체, 전기차, 군수산업의 핵심 원료다. 자원정치는 단지 누가 광산을 가졌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정제, 가공, 운송, 보험, 결제, 기술표준까지 포함한다.

핵심 전장

석유·가스: 호르무즈, 홍해, 러시아 수출 경로, LNG 재편.

희토류: 중국의 정제·가공 우위와 서방의 탈중국화 노력.

리튬·니켈·코발트·구리: 에너지전환과 배터리 공급망 경쟁.

우라늄: 원전 확대와 지정학적 공급불안.

식량: 기후, 전쟁, 비료, 해상운임과 연결된 전략자원화.

행위자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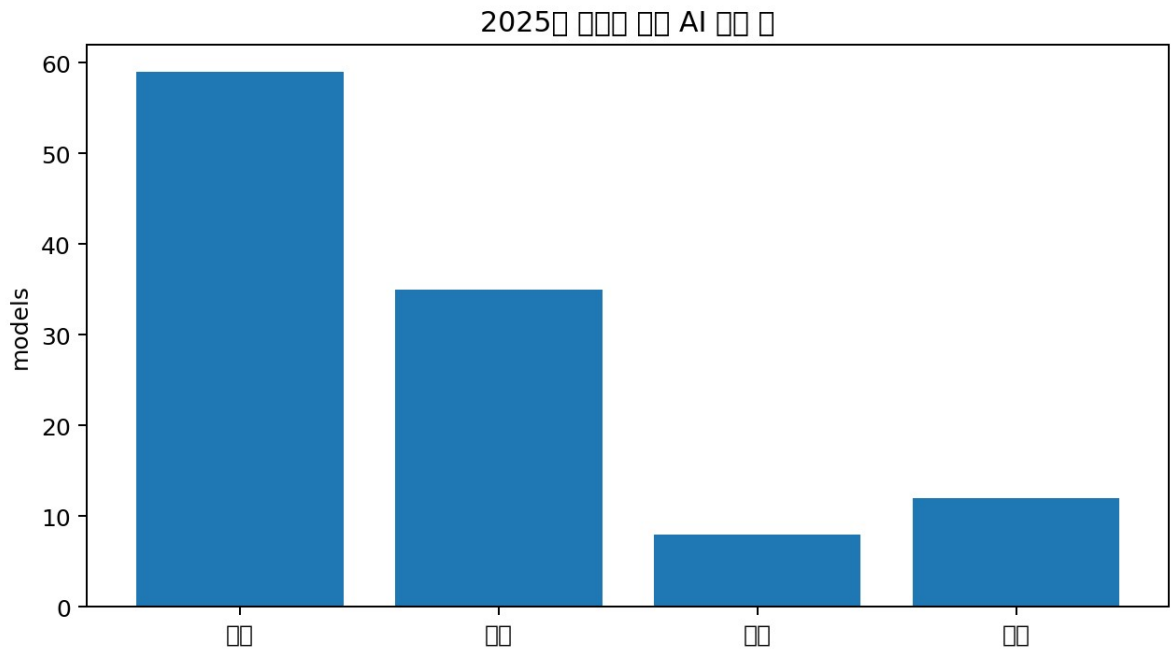
행위자	주요 전략
미국	석유·가스 생산과 동맹 자원망 결합
중국	정제·가공과 배터리 공급망 장악
러시아	석유·가스·우라늄을 지정학 도구로 활용
중동	생산조절과 시장영향력, 아시아수요 활용
아프리카·중남미	광물 공급지이자 강대국 경쟁의 무대

ASSESSMENT

미래 자원전쟁의 본질은 공급망 전체 가치사슬 통제다. Mining → refining → processing → component → manufacturing 을 모두 연결할 수 있는 쪽이 전략적 우위를 가진다. 이 점에서 중국의 정제·가공 지배력은 매우 중요한 구조적 자산이며, 미국과 동맹국의 대응은 아직 진행형이다.

17. 기술패권 경쟁

핵심 출처: [R2] [R14] [R24] [R35]



전략 이해를 돕기 위한 편집 그래픽 또는 차트.

기술패권 경쟁은 2026년 세계질서를 규정하는 핵심 전장이다.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양자, 사이버, 통신, 위성, 우주, 로봇, 드론, 자율무기, 생명공학이 모두 국가경쟁력과 군사력에 직접 연결된다. 기술은 더 이상 ‘민간 혁신’에 그치지 않고 국가안보 인프라가 되었다.

미국과 중국의 분야별 비교

분야	현재 우위	설명
Frontier AI	미국	모델 수, 자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응용형 AI와 산업확산	중국	중국의 제조업 적용속도 빠름
고급 AI GPU	미국	Nvidia 생태계와 장비
최첨단 반도체 제조	미국·대만	TSMC 및 장비생태계
Mature node·대규모 제조	중국	규모와 비용경쟁력
배터리·EV	중국	공급망 통합 우위
드론 제조	중국	대량생산과 비용우위
클라우드 글로벌 생태계	미국	Hyperscaler 우세
우주·위성	미국	민간·군사 결합 생태계 강점

AI와 지정학

AI는 생산성 향상의 도구일 뿐 아니라 정보전, 표적식별, 드론 스워밍, 합성미디어, 사이버공격, 감시, 금융거래, 공급망 최적화에 쓰인다. 국가 간 격차는 모델 성능만이 아니라 컴퓨트, 전력, 데이터센터, 반도체 공급, 인재풀, 규제, 응용산업 기반에서 벌어진다. [R14]

반도체

반도체는 대만해협과 직접 연결되는 전략산업이다. 최첨단 칩 생산은 대만 중심이지만 미국, 일본, 네덜란드, 한국이 장비와 소재, 설계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미국은 생산기지 분산과 리쇼어링을 확대하고 있고, 중국은 장비 제약 속에서 자립도를 끌어올리려 한다. [R24]

ASSESSMENT

기술패권의 본질은 발명 경쟁만이 아니다. 누가 표준을 정하고, 누가 스케일업하고, 누가 전력·컴퓨트·공급망을 통제하는가의 문제다. 미국의 공식은 innovation + capital + compute 이고, 중국의 공식은 manufacturing + scale + state mobilization 이다.

18. 군사력과 군비경쟁

핵심 출처: [R5] [R31] [R35]

군사력 비교에서 단순한 장비 수량은 점점 덜 중요해지고 있다. 오늘의 전쟁은 정밀무기, ISR, 위성, 소프트웨어, 드론, 전자전, 방공, 보급, 수리, 탄약생산속도, 산업동원체계가 함께 작동한다. 2025년 세계 군사비는 약 2.887조 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R5]

주요국 비교

국가	핵심 강점	주요 취약성
미국	글로벌 투사력, 잠수함, 공군, ISR, 동맹	미사일·요격체 생산속도, 재정 압박
중국	조선, 미사일, 드론, 인근전장 집중력	글로벌 병참, 실전경험
러시아	핵전력, 포병, 미사일, 전시경제	경제·기술·인구
인도	대군, 핵전력, 지리	산업·기술의 일관성 부족
일본	해공군, 기술, 산업	인구·정치적 제약
한국	방산생산, 조선, 포병, 미사일	북한 상수, 인구구조
이스라엘	공군, 정보, 미사일방어	장기전 피로와 보급의존
이란	미사일, 드론, 비대칭전	공군·경제·방공 취약성

전쟁지속능력

전쟁지속능력은 국가가 분쟁을 얼마나 오래 감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이는 병력 보충, 탄약 증산, 산업동원, 민간경제의 견딤, 동맹의 지원, 사회의 정치적 수용성을 포함한다. 우크라이나전은 산업동원이 없는 첨단무기 우위가 오래가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SSESSMENT

미래전의 공식은 “플랫폼의 질 × 탄약량 × 드론량 × 소프트웨어 적응속도 × 산업동원능력”이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이지만, 중국은 인근전장과 생산기반에서 점점 더 강력한 경쟁자가 되고 있다.

19. 핵무기와 전략적 억제

핵심 출처: [R6] [R17] [R31]

핵질서는 미·러 양자역지에서 다자역지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세계 최대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의 빠른 증강, 북한의 핵보유, 인도·파키스탄 경쟁, 이스라엘의 불투명한 억지, 이란의 threshold 문제까지 겹치며 전략계산은 훨씬 복잡해졌다.

주요 핵보유국

국가	전략적 특징
미국	3 축 핵전력과 확장억지 네트워크
러시아	대규모 전략·전술핵과 핵위협 외교
중국	질적·양적 증강, 보다 생존가능한 억지구조 추구
프랑스·영국	제한적이지만 고도화된 억지
인도·파키스탄	지역 핵억지와 위기불안정성
북한	체제생존형 핵무장과 강압억지
이스라엘	의도적 모호성
이란	핵보유국은 아니나 threshold 문제의 중심

중국과 북한, 이란의 의미

중국의 핵전력 확대는 미·중 경쟁을 재래식 대결에서 핵균형 문제로 끌어올린다. 북한은 제한된 수량으로도 동맹국의 의사결정에 불확실성을 주는 강압적 억지를 추구한다. 이란은 실제 핵무장을 하지 않더라도 threshold state 로 남는 것만으로도 지역세력균형을 바꾼다.

ASSESSMENT

가장 위험한 것은 핵무기 수량 증가 자체보다 arms control architecture 의 약화다. New START 이후의 불확실성, 미러 관계 악화, 미중 군비통제 부재는 위기시 오판 가능성을 높인다.

20. 동맹과 국제블록

핵심 출처: [R1] [R4] [R20] [R35]

현재 국제정치는 두 개의 완성된 블록으로 분리되기보다, 안보와 경제에서 서로 다른 정렬이 나타나는 복합적 네트워크 구조다. 미국 중심 네트워크는 NATO, 미일동맹, 한미동맹, AUKUS, Quad, 필리핀, 호주로 구성된다. 중국 중심 네트워크는 공식 군사동맹이 아니라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BRI, SCO, 경제적 의존망으로 구성된다.

미국 중심 네트워크

미국의 장점은 조약동맹과 작전호환성이다. NATO의 통합지휘, 미일·한미 연합체계, 정보공유, 군수지원, 기지 접근, 금융제재 협조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모방하기 어렵다.

중국과 Global South

중국은 안보동맹보다 경제·인프라·무역·정치지지를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BRICS는 서방 대항 블록이라기보다 비서구 국가들의 협의체에 가깝고, 각 회원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국제정치는 bloc politics 보다는 multi-alignment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ASSESSMENT

세계는 완전한 진영분리로 가지 않는다. 안보에서는 미국 쪽 정렬이 강하고, 경제에서는 복수 파트너를 유지하는 ‘하드 얼라인먼트 + 소프트 멀티얼라인먼트’가 기본형이다.

21. 국제기구

핵심 출처: [R4] [R21] [R22] [R32] [R33]

국제기구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강대국 정치의 귀환 속에서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UN과 UNSC는 강대국 간 이해충돌 때문에 결정능력이 약화됐고, WTO는 국가안보 예외와 산업정책 확대로 규범집행이 약해졌다. 반면 IMF와 World Bank는 금융안정·개발금융에서 여전히 중요하며, NATO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기관별 평가

기관	평가
UN/UNSC	정당성은 높지만 강대국 분열로 집행력 약화
NATO	군사동맹으로서 강화
EU	경제·규제·방위정책에서 역할 확대
IMF/World Bank	거시안정과 개발금융에서 지속적 영향
WTO	규범은 남지만 실질 통제력은 약화
G7/G20	정책조율 플랫폼으로 중요
BRICS/SCO/ASEAN	비서구 협의체와 지역균형 장치로 중요성 확대

ASSESSMENT

국제기구는 세계질서를 통제하는 상위주권체가 아니라 강대국과 중견국이 협상·정당화·조정에 활용하는 장치다. 이 제도들의 미래는 규범보다 정치력에 달려 있다.

22. 정보전·사이버전·인지전

핵심 출처: [R14] [R35] [R40]

현대 국제정치에서 정보공간은 독립된 전장이다. 선전, 허위정보, 사이버공격, 선거개입, 소셜미디어 조작, AI 생성 콘텐츠, 심리전, 인지전이 국가전략의 일부가 되었다. 사이버전은 군사충돌 이전에도 실행되며, 전쟁 발발 시에는 전력망, 통신, 금융, 항만, 물류 시스템과 결합해 큰 효과를 낸다.

왜 중요해졌는가

정보의 생산·유통 비용이 급락했다.

생성형 AI로 맞춤형 선전·딥페이크 생산이 쉬워졌다.

사회가 디지털 플랫폼에 의존할수록 취약점이 늘어난다.

정치 양극화가 허위정보의 흡수성을 높인다.

사이버와 군사작전이 결합하면 평시와 전시의 경계가 흐려진다.

주요 행위자

미국,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정보공간을 활용한다. 러시아는 영향작전과 회색지대 개입에 강점을 보이고, 중국은 검열·플랫폼 통제와 국제담론 형성에 집중하며, 이란과 북한은 비대칭적 사이버역량을 통해 상대의 비용을 높인다. 서방 국가들 역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재, 사이버 억제, 노출(disclosure), 플랫폼 규제 등을 통해 대응한다.

ASSESSMENT

생성형 AI 시대의 핵심 위협은 단순히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군사위기관리, 금융시장 안정, 사회적 신뢰를 동시에 잠식한다.

23. 2026년 9월 국제정세 TOP 20

핵심 출처: 본문 전체 종합.

전략적 중요도, 발생 확률, 미국과 중국에 대한 영향, 세계경제 파급력이라는 네 기준으로 2026년 9월 국제정세를 좌우하는 20개 사안을 선정하면 다음과 같다.

순위	사안	전략적 의미
1	미·중 전략경쟁	21세기 질서의 구조적 중심축
2	미국-이란 충돌과 호르무즈	에너지·인플레이션·해상안보
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유럽 안보구조와 군사산업
4	미국 동맹전략 재조정	패권 운영 방식 변화
5	AI·반도체 패권경쟁	경제·군사·생산성의 미래
6	중국 경제 구조문제	세계 수요와 공급망에 영향
7	대만해협 압박	미중 직접전쟁 위험
8	유럽 재무장	NATO와 방산질서 재편
9	미국 40조 달러 부채	장기 재정과 금리 리스크
10	핵군비경쟁	억지구조의 복잡화
11	Global South 다중정렬	양극화 완화 또는 지연
12	에너지 해상수송로 위기	Hormuz/Red Sea 리스크
13	인도 부상	새로운 강대국 축 형성
14	북한 핵·러북 협력	동북아 위기 가능성
15	관세·산업정책 경쟁	세계화 재편
16	Critical minerals 경쟁	산업안보의 핵심
17	사이버·인지전	정치·전쟁·사회 안정 위협
18	국제기구의 제한	규범질서 약화
19	우주 군사화	통신·ISR·억지와 연결
20	식량·기후·자원 결합위험	장기적 구조위험

이 순위는 도덕적 중요도라기보다 시스템적 영향력 기준이다. 1~5위는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컨대 미국-이란 충돌은 에너지와 인플레이션을 통해 연준, 채권금리, 미국 재정, 동맹정치에 연쇄효과를 낼 수 있다.

24. Global Risk Matrix

핵심 출처: 본문 전체 종합.

2. 해상봉쇄	중국의 해상·공중 봉쇄	중간	높음
3. 재한적 충돌	국지적 군사 충돌	낮음-중간	높음
4. 전면 침공	중국의 대만 상륙작전	낮음	매우 높음
5. 미·중 적립전쟁	미·중 군사 충돌 확대	매우 낮음	치명적

| 핵심 포인트

- 반도체 공급망과 글로벌 경제에 치명적 충격 가능성
- 미국의 개입 여부가 시나리오 전개를 결정

54

23. Global Risk Matrix (위험도 평가)

위험 요인	0~6개월	6~12개월	1~3년	3~10년
미·중 군사 충돌				
대만 침공				
러·우 전쟁 확대				
중동 전면전				
이란 핵무장				
글로벌 금융위기				

전략 이해를 돕기 위한 편집 그래픽 또는 차트.

위험지도는 Probability × Impact 방식으로 평가했다. Probability 는 1=<10%, 2=10~25%, 3=25~50%, 4=50~75%, 5=>75%, Impact 는 1=Limited, 2=Moderate, 3=Serious, 4=Systemic, 5=Catastrophic 로 정의한다. 점수 16~25 는 Critical, 10~15 High, 5~9 Medium, 1~4 Low 다.

위험	P	I	점수	시간대	평가
미국-이란/호르무즈 확전	4	5	20	0~6개월	Critical

러-우 전쟁 확대	4	4	16	0~12개월	Critical
미중 기술·무역전 심화	4	4	16	0~12개월	Critical
미국 재정·채권금리 충격	3	4	12	0~12개월	High
중국 장기침체	4	3	12	1~3년	High
북한 중대도발	3	4	12	0~12개월	High
대형 사이버 인프라 공격	4	3	12	0~12개월	High
대만 봉쇄위기	2	5	10	1~3년	High
India-Pakistan 위기	2	5	10	1~3년	High
세계 식량·에너지 복합충격	2	4	8	1~3년	Medium

ASSESSMENT: 확률과 영향이 가장 동시에 높은 위험은 중동이다. 반면 확률은 낮아도 영향이 파국적인 위험은 대만 전면침공 또는 미중 직접전쟁이다. 전략기획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가능성 높은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확률은 낮지만 체제를 바꿔버릴 수 있는 사건의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25. 향후 6개월 전망

핵심 출처: 본문 종합.

기본 시나리오: ‘고정된 경쟁 속 다발적 변동성’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소모전이 이어지고, 중동에서는 미국-이란 충돌이 불안정한 휴전과 재확전 사이를 오갈 가능성이 있다. 미중 관계는 대만해협에서 회색지대 경쟁을 이어가며, 경제·기술 차단은 한층 정교해질 수 있다.

에너지: 호르무즈 통과량, LNG 우회수송, Brent 가격 변동성이 가장 중요.

전쟁: 우크라이나 전선의 국지변화보다 장거리 타격과 산업동원이 중요.

시장: 금리와 유가가 동시에 상승하면 취약성이 커진다.

외교: 위기관리를 위한 비공개 채널이 더 중요해진다.

투자자와 정책결정자 모두에게 6개월의 핵심은 ‘충격의 방향’이다. 성장둔화 자체보다 지정학적 충격이 인플레이션·금리·재정과 어떤 연결고리를 만드는지가 결정적이다.

26. 향후 1년 전망

핵심 출처: 본문 종합.

1년 시계에서는 미국의 다중전구 관리능력이 핵심 변수다. 유럽, 중동, 인도태평양에서 동시에 위기가 지속될 경우 미국은 동맹부담분담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 중국은 직접전쟁을 피하면서도 미국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환경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는 휴전 또는 동결분쟁 가능성이 있으나 정치적 종전은 낮다.

중동은 제한전의 반복 또는 관리된 긴장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대만해협은 회색지대 압박과 경제강압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경제는 AI 투자붐이 일부를 떠받치지만 전반적으로는 낮은 성장환경이 지속될 수 있다.

27. 향후 3년 전망

핵심 출처: 본문 종합.

3년 시계는 구조적 변화의 시간대다. 유럽 재무장, 중국 핵전력 증강, 미국의 산업정책, 인도의 성장, AI의 군사적 적용, 에너지·광물 공급망 재편이 누적효과를 낸다. 이 시기 국제질서는 더 군사화되고, 더 기술화되며, 더 산업정책화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은 미국 의존도를 일부 줄이며 방산생산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강압을 유지하되, 경제·내수 구조전환 성공 여부가 외교공세의 범위를 제약할 수 있다.

미국은 AI와 국방, 반도체, 에너지에서 우위를 유지하려 할 것이나 재정압박은 커질 수 있다.

Global South의 다중정렬은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28. 5~10년 세계질서 전망

핵심 출처: 본문 종합.

5~10년 시야에서는 다섯 개의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 미국 중심 네트워크 질서의 지속. 둘째, 미·중 신냉전 고착. 셋째, 실질적 다극체제 정착. 넷째, 지역전쟁 연쇄확대. 다섯째, 대형 금융·부채 위기와 질서재편이다.

시나리오	설명	분석적 가능성
미국 중심 질서 유지	미국 우위 지속, 동맹부담 증가	30%
미중 신냉전 고착	기술·금융·군사 블록화	30%
다극체제 정착	미국·중국·EU·인도·중견국 동시 부상	25%
지역전쟁 연쇄 확대	대만·중동·유럽 전장 동시 불안	10%
세계금융위기와 재편	부채·금리·은행시스템 충격	5%

가장 가능성이 높은 현실은 이 다섯 시나리오 중 하나의 순수형이 아니라, 미국 중심 동맹망이 계속되면서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Global South의 다중정렬과 일부 다극성이 동시에 강화되는 혼합형이다.

29. 결론

핵심 출처: 본문 종합.

2026년 9월 세계정세의 핵심은 패권교체의 단순한 서사가 아니라, 미국 우위의 국제체제가 더 군사화되고, 더 경제안보화되고, 더 기술적으로 분절되며, 여러 지역강국이 더 큰 자율성을 확보하는 경쟁질서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여전히 가장 강하지만 이전보다 더 많은 비용과 제약 속에서 그 우위를 관리해야 한다. 중국은 아직 대체패권은 아니지만 미국이 가장 심각하게 대응해야 할 장기 경쟁자다. 러시아는 경제력보다 큰 파괴력을 가진 수정주의 강대국이다. 중동과 대만해협은 체제충격 가능성이 큰 위험지대이며, 인도와 Global South는 질서의 다극화를 촉진한다.

결국 2026년 세계를 읽는 핵심은 국가별 뉴스가 아니라 시스템의 연결을 보는 것이다. 군사전쟁, 경제전쟁, 금융전쟁, 에너지전쟁, 기술전쟁, 정보전, 동맹정치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세계정세는 더 이상 '정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전력망, 보험, 데이터센터, 드론 공장, 해저케이블, 채권시장, 여론전까지 포함하는 총체적 전략환경이 되었다.

A. 현재 국제정세를 한 문장으로 정의

2026년 9월의 세계는 미국이 여전히 최강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유지하지만 중국의 산업·기술·군사적 도전, 러시아의 전쟁, 미국-이란 충돌, Global South의 다중정렬, AI·에너지·금융·공급망의 안보화가 중첩되면서 '미·중 양극경쟁을 중심축으로 하는 총위형 비대칭 다극체제'로 이동하는 세계다.

B.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10 개의 전략적 질문

- 미국은 중국·러시아·이란이라는 세 전구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가?
- 중국 경제는 구조적 저성장으로 고착될 것인가, 기술·산업 전환에 성공할 것인가?
- 대만해협의 회색지대 압박은 봉쇄나 군사행동으로 발전할 것인가?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휴전·동결전쟁·장기소모전 가운데 어디로 수렴할 것인가?
- 미국-이란 충돌은 광역 중동전쟁으로 확산할 것인가?
- AI와 반도체 경쟁에서 미국의 혁신우위와 중국의 제조우위 중 무엇이 더 결정적인가?
- 미국의 국가부채는 장기 패권운용 능력을 어느 정도 제약할 것인가?
- 유럽은 미국 의존을 줄인 방위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가?
- 인도와 Global South는 새로운 제3극을 형성할 것인가?
- 핵군축체제 약화는 새로운 다자 핵군비경쟁으로 이어질 것인가?

C. 반드시 추적해야 할 20 개의 지표

지표	이유
Hormuz 통과량	에너지와 전쟁위험의 직접 신호
Brent/WTI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성장
아시아 LNG 현물가	가스시장 긴장도
미국 10년물 금리	국제금융 여건
미국 재정적자·부채	장기 패권지속성

Fed 정책금리	달러 유동성과 자본흐름
DXY 와 USD/CNY	금융패권과 중국압력
중국 GDP·소매판매	내수와 성장질
중국 부동산·지방정부 재정	구조위험
미중 관세·수출통제 변화	경제안보 심화 여부
PLA 의 대만 주변 sorties	대만위기 수준
우크라이나/러시아 월별 영토변화	전쟁 추세
우크라이나·러시아 드론 생산량	전쟁지속능력
NATO 유럽 국방비·탄약생산	유럽 자율성
중국 핵전력 증강속도	핵균형 변화
북한 핵·ICBM 활동	한반도 위기
BRICS/SCO 결제구조 변화	다극화 지표
AI 컴퓨트와 데이터센터 투자	기술패권
TSMC 및 반도체 투자배치	공급망 안보
사이버 인프라 공격 빈도	정보전·사회위험

부록 1. 국가별 전략 프로필

이 부록은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요 국가와 지역행위자의 전략 프로필을 한 번에 참조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미국

핵심목표는 중국 견제, 동맹유지, 달러질서 유지, 기술우위 유지다. 강점은 군사·금융·동맹·기술이며 약점은 재정과 정치양극화다.

전략적 질문: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구조적 위험은 무엇인가?

전략적 질문: 미국이 향후 3년 동안 가장 우선할 정책도구는 무엇인가?

관찰 포인트: 미국의 국내정치 변화가 대외전략을 바꿀 가능성은 어떤가?

중국

핵심목표는 체제안정, 통일 압박, 산업우위 유지, 미국세력 견제다. 강점은 제조업·공급망·국가동원, 약점은 부동산·인구·금융신뢰다.

전략적 질문: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구조적 위험은 무엇인가?

전략적 질문: 중국이 향후 3년 동안 가장 우선할 정책도구는 무엇인가?

관찰 포인트: 중국의 국내정치 변화가 대외전략을 바꿀 가능성은 어떤가?

러시아

핵심목표는 영향권 유지, 우크라이나 문제 재설정, 서방 분열 유도다. 강점은 핵·자원·전시경제, 약점은 기술과 인구다.

전략적 질문: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구조적 위험은 무엇인가?

전략적 질문: 러시아가 향후 3년 동안 가장 우선할 정책도구는 무엇인가?

관찰 포인트: 러시아의 국내정치 변화가 대외전략을 바꿀 가능성은 어떤가?

EU

핵심목표는 경제안정, 방위력 강화, 전략자율성 확대다. 강점은 시장·규제·산업, 약점은 군사통합 부족이다.

전략적 질문: EU가 가장 두려워하는 구조적 위험은 무엇인가?

전략적 질문: EU가 향후 3년 동안 가장 우선할 정책도구는 무엇인가?

관찰 포인트: EU의 국내정치 변화가 대외전략을 바꿀 가능성은 어떤가?

일본

핵심목표는 미일동맹 강화, 대중 억지, 남서도서 방어다. 강점은 기술·자본·해공군, 약점은 인구와 에너지의존이다.

전략적 질문: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구조적 위험은 무엇인가?

전략적 질문: 일본이 향후 3년 동안 가장 우선할 정책도구는 무엇인가?

관찰 포인트: 일본의 국내정치 변화가 대외전략을 바꿀 가능성은 어떤가?

한국

핵심목표는 북한 억지, 한미동맹 유지, 경제안보 대응이다. 강점은 방산·반도체·조선, 약점은 대외의존과 북한 상수다.

전략적 질문: 한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구조적 위험은 무엇인가?

전략적 질문: 한국이 향후 3년 동안 가장 우선할 정책도구는 무엇인가?

관찰 포인트: 한국의 국내정치 변화가 대외전략을 바꿀 가능성은 어떤가?

인도

핵심목표는 성장, 전략자율성, 중국 견제, Global South 리더십이다. 강점은 인구·성장·지리, 약점은 인프라와 행정효율이다.

전략적 질문: 인도가 가장 두려워하는 구조적 위험은 무엇인가?

전략적 질문: 인도가 향후 3년 동안 가장 우선할 정책도구는 무엇인가?

관찰 포인트: 인도의 국내정치 변화가 대외전략을 바꿀 가능성은 어떤가?

이란

핵심목표는 정권생존, 억지력 유지, 대미강압이다. 강점은 미사일·드론·대리세력, 약점은 공군·경제다.

전략적 질문: 이란이 가장 두려워하는 구조적 위험은 무엇인가?

전략적 질문: 이란이 향후 3년 동안 가장 우선할 정책도구는 무엇인가?

관찰 포인트: 이란의 국내정치 변화가 대외전략을 바꿀 가능성은 어떤가?

사우디아라비아

핵심목표는 에너지영향력, 내수개혁, 다변화외교다. 강점은 석유·자본, 약점은 군사적 취약성이다.

전략적 질문: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구조적 위험은 무엇인가?

전략적 질문: 사우디아라비아가 향후 3년 동안 가장 우선할 정책도구는 무엇인가?

관찰 포인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내정치 변화가 대외전략을 바꿀 가능성은 어떤가?

북한

핵심목표는 체제생존과 강압억지다. 강점은 핵·미사일·예측불가성, 약점은 경제와 재래전력의 질이다.

중장기 통일·전면전 시나리오 평가

ASSESSMENT: 북한이 남한을 정치·군사적으로 일방 흡수하는 형태의 이른바 적화통일 또는 북한 주도 흡수통일은 현재의 군사·경제·인구·산업 역량과 한미동맹을 고려할 때 단기~중기의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며,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 특히 북한은 2024년 이후 남북관계를 기존의 단일민족·통일 대상보다는 서로 적대적인 국가관계로 재규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였고, 2026년에도 한국을 적대국가로

취급하는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통일’ 수사와 현재의 공식 전략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R18] [R19]

다만 통일 담론의 후퇴가 대남 군사적 강압의 약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북한은 핵무기·탄도미사일·장사정포·특수전·사이버·회색지대 도발을 결합해 전면전 이하에서 한국과 미국의 비용을 높일 수 있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은 일부 무기·훈련·전쟁경험과 기술 측면에서 북한의 역량을 보완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남한 전체를 점령하고 장기간 통치하는 전쟁은 한국의 훨씬 큰 경제·산업·인구 기반, 한국 군과 주한미군 및 미국 증원전력, 장기 점령·보급 비용 때문에 북한 정권 자체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 선택이다. [R18] [R31] [R38]

FORECAST: 북한이 의도적으로 전면침공을 개시하는 시나리오는 향후 수년의 기본 전망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가능성을 0으로 둘 수도 없다. 위험은 ①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거나 미국의 확장억제가 현저히 약화될 때, ② 북한 지도부가 핵위협으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다고 오판할 때, ③ 북러 군사협력으로 정찰·미사일·방공·군수·실전경험이 크게 향상될 때, ④ 한국 내부에 심각한 정치·군사적 혼란이 발생할 때, ⑤ 국지적 충돌과 상호보복이 통제되지 못하고 확산될 때 상승할 수 있다. 현재 가장 현실적인 위험 경로는 계획된 ‘적화통일 전쟁’보다 국지도발 → 오판 → 상호보복 → 확산이다. 장기적으로도 북한이 ‘통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정치·군사적 굴복을 강요하려는 강압전략 자체는 배제할 수 없다.

전략적 질문: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구조적 위험은 무엇인가?

전략적 질문: 북한이 향후 3년 동안 가장 우선할 정책도구는 무엇인가?

관찰 포인트: 북한의 국내정치 변화가 대외전략을 바꿀 가능성은 어떤가?

부록 2. 세계정세 관찰용 체크리스트

실무적으로 국제정세를 추적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과 관찰포인트를 정리한다.

전쟁

전선이 바뀌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소모전 비용만 누적되는가?

전쟁 분야에서 주간·월간 추적지표를 구분해 볼 것.

전쟁 관련 공식 발표와 시장가격 반응을 함께 비교할 것.

전쟁에서 발생하는 변화가 다른 전장(금융·동맹·정보전)으로 번지는지 관찰할 것.

에너지

유가 상승이 공급부족 때문인가, 위험프리미엄 때문인가?

에너지 분야에서 주간·월간 추적지표를 구분해 볼 것.

에너지 관련 공식 발표와 시장가격 반응을 함께 비교할 것.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변화가 다른 전장(금융·동맹·정보전)으로 번지는지 관찰할 것.

금융

국채금리 변화는 성장전망, 인플레이션, 재정우려 중 무엇이 주도하는가?

금융 분야에서 주간·월간 추적지표를 구분해 볼 것.

금융 관련 공식 발표와 시장가격 반응을 함께 비교할 것.

금융에서 발생하는 변화가 다른 전장(금융·동맹·정보전)으로 번지는지 관찰할 것.

미중경쟁

새로운 수출통제나 관세조치가 전략산업에 미치는 직접영향은 무엇인가?

미중경쟁 분야에서 주간·월간 추적지표를 구분해 볼 것.

미중경쟁 관련 공식 발표와 시장가격 반응을 함께 비교할 것.

미중경쟁에서 발생하는 변화가 다른 전장(금융·동맹·정보전)으로 번지는지 관찰할 것.

동맹정치

미국 동맹국들은 실제로 자원을 더 부담하고 있는가?

동맹정치 분야에서 주간·월간 추적지표를 구분해 볼 것.

동맹정치 관련 공식 발표와 시장가격 반응을 함께 비교할 것.

동맹정치에서 발생하는 변화가 다른 전장(금융·동맹·정보전)으로 번지는지 관찰할 것.

기술

AI·반도체에서 경쟁우위가 연구, 자본, 제조, 응용 가운데 어디서 결정되는가?

기술 분야에서 주간·월간 추적지표를 구분해 볼 것.

기술 관련 공식 발표와 시장가격 반응을 함께 비교할 것.

기술에서 발생하는 변화가 다른 전장(금융·동맹·정보전)으로 번지는지 관찰할 것.

Global South

각국은 실제로 누구와 거래를 늘리고 누구와 안보협력을 강화하는가?

Global South 분야에서 주간·월간 추적지표를 구분해 볼 것.

Global South 관련 공식 발표와 시장가격 반응을 함께 비교할 것.

Global South에서 발생하는 변화가 다른 전장(금융·동맹·정보전)으로 번지는지 관찰할 것.

정보전

허위정보의 목표는 설득인가 혼란인가?

정보전 분야에서 주간·월간 추적지표를 구분해 볼 것.

정보전 관련 공식 발표와 시장가격 반응을 함께 비교할 것.

정보전에서 발생하는 변화가 다른 전장(금융·동맹·정보전)으로 번지는지 관찰할 것.

핵전략

역지구조가 양자에서 다자로 옮겨가며 위기안정성이 낮아지고 있는가?

핵전략 분야에서 주간·월간 추적지표를 구분해 볼 것.

핵전략 관련 공식 발표와 시장가격 반응을 함께 비교할 것.

핵전략에서 발생하는 변화가 다른 전장(금융·동맹·정보전)으로 번지는지 관찰할 것.

산업동원

전시 또는 위기 상황에서 누가 더 빨리 생산을 늘릴 수 있는가?

산업동원 분야에서 주간·월간 추적지표를 구분해 볼 것.

산업동원 관련 공식 발표와 시장가격 반응을 함께 비교할 것.

산업동원에서 발생하는 변화가 다른 전장(금융·동맹·정보전)으로 번지는지 관찰할 것.

부록 3. 참고자료 목록 [R1]~[R40]

본문에 사용한 주요 자료를 정리한다.

[R1] U.S. Department of Defense, 2026 National Defense Strategy, January 2026.

[R2] White House, Adjusting Imports of Semiconductors,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and Their Derivative Products into the United States, January 2026.

[R3]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ly 2026.

[R4] NATO, Defence Expenditures and NATO's 5% Commitment, 2025 - 2026 guidance.

[R5] SIPRI, 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25 / press release, April 2026.

[R6] SIPRI Yearbook 2026 and related nuclear weapons summary, June 2026.

[R7] Reuters, U.S.-Iran exchange attacks / latest wave of U.S. strikes on Iran, September 2, 2026.

[R8] U.S.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global oil markets and Strait of Hormuz estimates, 2026.

[R9] Reuters, Putin says Russia is winning on the battlefield, September 1, 2026.

[R10] Reuters, Russia cuts expected 2026 oil output, September 1, 2026.

[R11] CSIS, The Geometry of Coercion: Tracking the PRC's Maritime and Air Pressure on Taiwan, May 2026.

[R12] CSIS, Lights Out? Wargaming a Chinese Blockade of Taiwan, 2026.

[R13] USNI News, Report to Congress on Defense of Taiwan, June 2026.

[R14] Stanford HAI, AI Index Report 2026.

[R15] Reuters, India GDP grows 7.8% in April - June 2026, August 31, 2026.

[R16] IMF, United States 2026 Article IV Consultation, April 2026.

[R17] IAEA Director General statements and safeguards reporting on Iran, 2026.

[R18] Reuters, North Korea says hostile U.S. policy unchanged, August 31, 2026.

[R19] Reuters, South Korea seeks conditions for renewed U.S.-North Korea dialogue, September 2, 2026.

[R20] Reuters, Turkey and SCO/NATO balancing, September 2, 2026.

[R21]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June 2026.

[R22] BIS, Annual Economic Report 2026.

- [R23]** 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March 2026.
- [R24]** Reuters, Taiwan says its companies plan major U.S. investment / TSMC-related developments, September 2, 2026.
- [R25]** Reuters, Qatari and UAE LNG cargoes transferred outside Hormuz, September 2, 2026.
- [R26]** Reuters, U.S. debt tops \$40 trillion as borrowing costs rise, September 2, 2026.
- [R27]** Reuters, Oil rises on fresh U.S. - Iran strikes, September 2, 2026.
- [R28]** Reuters, China factory activity remains in contraction in August 2026.
- [R29]** Reuters, Taiwan holds anti-blockade naval drill during war games, August 13, 2026.
- [R30]** Reuters, Pentagon NATO review / troop options, August 27, 2026.
- [R31]** IISS, The Military Balance 2026.
- [R32]** WTO, Global trade updates and trade policy monitoring, 2026.
- [R33]** UN, selected documents and data on multilateral governance, 2026.
- [R34]** Federal Reserve, policy statements and U.S. macroeconomic data, 2026.
- [R35]** Brookings / Carnegie / RAND / Chatham House selected 2025 - 2026 strategic analysis as supplementary context.
- [R36]** EU institutions, defence-industrial and economic security documents, 2026.
- [R37]** Japanese Ministry of Defense / budget request materials, 2026.
- [R38]** South Korean government an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foreign affairs materials, 2026.
- [R39]** U.S. Treasury and sanctions-related releases, 2026.
- [R40]** Selected Reuters / AP / Nikkei Asia / Financial Times dispatches used only for recent developments requiring time sensitivity.

부록 4. 장별 핵심 판단 요약

1. Executive Summary

핵심 FACT: 본문 해당 장에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우선 재검토할 것.

핵심 ASSESSMENT: 구조적 원인과 행위자의 의도를 구분해서 읽을 것.

핵심 FORECAST: 6개월·1년·3년 시계에서 무엇이 가장 달라질 수 있는지 점검할 것.

핵심 SCENARIO: 확률은 낮지만 체제충격이 큰 대안을 항상 함께 볼 것.

2. 2026년 9월 세계질서 한눈에 보기

핵심 FACT: 본문 해당 장에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우선 재검토할 것.

핵심 ASSESSMENT: 구조적 원인과 행위자의 의도를 구분해서 읽을 것.

핵심 FORECAST: 6개월·1년·3년 시계에서 무엇이 가장 달라질 수 있는지 점검할 것.

핵심 SCENARIO: 확률은 낮지만 체제충격이 큰 대안을 항상 함께 볼 것.

3. Global Power Map

핵심 FACT: 본문 해당 장에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우선 재검토할 것.

핵심 ASSESSMENT: 구조적 원인과 행위자의 의도를 구분해서 읽을 것.

핵심 FORECAST: 6개월·1년·3년 시계에서 무엇이 가장 달라질 수 있는지 점검할 것.

핵심 SCENARIO: 확률은 낮지만 체제충격이 큰 대안을 항상 함께 볼 것.

4. 미국의 세계전략

핵심 FACT: 본문 해당 장에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우선 재검토할 것.

핵심 ASSESSMENT: 구조적 원인과 행위자의 의도를 구분해서 읽을 것.

핵심 FORECAST: 6개월·1년·3년 시계에서 무엇이 가장 달라질 수 있는지 점검할 것.

핵심 SCENARIO: 확률은 낮지만 체제충격이 큰 대안을 항상 함께 볼 것.

5. 중국

핵심 FACT: 본문 해당 장에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우선 재검토할 것.

핵심 ASSESSMENT: 구조적 원인과 행위자의 의도를 구분해서 읽을 것.

핵심 FORECAST: 6개월·1년·3년 시계에서 무엇이 가장 달라질 수 있는지 점검할 것.

핵심 SCENARIO: 확률은 낮지만 체제충격이 큰 대안을 항상 함께 볼 것.

6. 미·중 전략경쟁

핵심 FACT: 본문 해당 장에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우선 재검토할 것.

핵심 ASSESSMENT: 구조적 원인과 행위자의 의도를 구분해서 읽을 것.

핵심 FORECAST: 6개월·1년·3년 시계에서 무엇이 가장 달라질 수 있는지 점검할 것.

핵심 SCENARIO: 확률은 낮지만 체제충격이 큰 대안을 항상 함께 볼 것.

7.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핵심 FACT: 본문 해당 장에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우선 재검토할 것.

핵심 ASSESSMENT: 구조적 원인과 행위자의 의도를 구분해서 읽을 것.

핵심 FORECAST: 6개월·1년·3년 시계에서 무엇이 가장 달라질 수 있는지 점검할 것.

핵심 SCENARIO: 확률은 낮지만 체제충격이 큰 대안을 항상 함께 볼 것.

8. 유럽과 NATO

핵심 FACT: 본문 해당 장에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우선 재검토할 것.

핵심 ASSESSMENT: 구조적 원인과 행위자의 의도를 구분해서 읽을 것.

핵심 FORECAST: 6개월·1년·3년 시계에서 무엇이 가장 달라질 수 있는지 점검할 것.

핵심 SCENARIO: 확률은 낮지만 체제충격이 큰 대안을 항상 함께 볼 것.

9. 중동

핵심 FACT: 본문 해당 장에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우선 재검토할 것.

핵심 ASSESSMENT: 구조적 원인과 행위자의 의도를 구분해서 읽을 것.

핵심 FORECAST: 6개월·1년·3년 시계에서 무엇이 가장 달라질 수 있는지 점검할 것.

핵심 SCENARIO: 확률은 낮지만 체제충격이 큰 대안을 항상 함께 볼 것.

10. 동아시아

핵심 FACT: 본문 해당 장에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우선 재검토할 것.

핵심 ASSESSMENT: 구조적 원인과 행위자의 의도를 구분해서 읽을 것.

핵심 FORECAST: 6개월·1년·3년 시계에서 무엇이 가장 달라질 수 있는지 점검할 것.

핵심 SCENARIO: 확률은 낮지만 체제충격이 큰 대안을 항상 함께 볼 것.

11. 한반도

핵심 FACT: 본문 해당 장에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우선 재검토할 것.

핵심 ASSESSMENT: 구조적 원인과 행위자의 의도를 구분해서 읽을 것.

핵심 FORECAST: 6개월·1년·3년 시계에서 무엇이 가장 달라질 수 있는지 점검할 것.

핵심 SCENARIO: 확률은 낮지만 체제충격이 큰 대안을 항상 함께 볼 것.

12. 대만해협

핵심 FACT: 본문 해당 장에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우선 재검토할 것.

핵심 ASSESSMENT: 구조적 원인과 행위자의 의도를 구분해서 읽을 것.

핵심 FORECAST: 6개월·1년·3년 시계에서 무엇이 가장 달라질 수 있는지 점검할 것.

핵심 SCENARIO: 확률은 낮지만 체제충격이 큰 대안을 항상 함께 볼 것.

13. 인도와 Global South

핵심 FACT: 본문 해당 장에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우선 재검토할 것.

핵심 ASSESSMENT: 구조적 원인과 행위자의 의도를 구분해서 읽을 것.

핵심 FORECAST: 6개월·1년·3년 시계에서 무엇이 가장 달라질 수 있는지 점검할 것.

핵심 SCENARIO: 확률은 낮지만 체제충격이 큰 대안을 항상 함께 볼 것.

14. 세계경제

핵심 FACT: 본문 해당 장에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우선 재검토할 것.

핵심 ASSESSMENT: 구조적 원인과 행위자의 의도를 구분해서 읽을 것.

핵심 FORECAST: 6개월·1년·3년 시계에서 무엇이 가장 달라질 수 있는지 점검할 것.

핵심 SCENARIO: 확률은 낮지만 체제충격이 큰 대안을 항상 함께 볼 것.

15. 국제금융

핵심 FACT: 본문 해당 장에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우선 재검토할 것.

핵심 ASSESSMENT: 구조적 원인과 행위자의 의도를 구분해서 읽을 것.

핵심 FORECAST: 6개월·1년·3년 시계에서 무엇이 가장 달라질 수 있는지 점검할 것.

핵심 SCENARIO: 확률은 낮지만 체제충격이 큰 대안을 항상 함께 볼 것.

16. 에너지·원자재·자원전쟁

핵심 FACT: 본문 해당 장에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우선 재검토할 것.

핵심 ASSESSMENT: 구조적 원인과 행위자의 의도를 구분해서 읽을 것.

핵심 FORECAST: 6개월·1년·3년 시계에서 무엇이 가장 달라질 수 있는지 점검할 것.

핵심 SCENARIO: 확률은 낮지만 체제충격이 큰 대안을 항상 함께 볼 것.

17. 기술패권 경쟁

핵심 FACT: 본문 해당 장에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우선 재검토할 것.

핵심 ASSESSMENT: 구조적 원인과 행위자의 의도를 구분해서 읽을 것.

핵심 FORECAST: 6개월·1년·3년 시계에서 무엇이 가장 달라질 수 있는지 점검할 것.

핵심 SCENARIO: 확률은 낮지만 체제충격이 큰 대안을 항상 함께 볼 것.

18. 군사력과 군비경쟁

핵심 FACT: 본문 해당 장에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우선 재검토할 것.

핵심 ASSESSMENT: 구조적 원인과 행위자의 의도를 구분해서 읽을 것.

핵심 FORECAST: 6개월·1년·3년 시계에서 무엇이 가장 달라질 수 있는지 점검할 것.

핵심 SCENARIO: 확률은 낮지만 체제충격이 큰 대안을 항상 함께 볼 것.

19. 핵무기와 전략적 억제

핵심 FACT: 본문 해당 장에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우선 재검토할 것.

핵심 ASSESSMENT: 구조적 원인과 행위자의 의도를 구분해서 읽을 것.

핵심 FORECAST: 6개월·1년·3년 시계에서 무엇이 가장 달라질 수 있는지 점검할 것.

핵심 SCENARIO: 확률은 낮지만 체제충격이 큰 대안을 항상 함께 볼 것.

20. 동맹과 국제블록

핵심 FACT: 본문 해당 장에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우선 재검토할 것.

핵심 ASSESSMENT: 구조적 원인과 행위자의 의도를 구분해서 읽을 것.

핵심 FORECAST: 6개월·1년·3년 시계에서 무엇이 가장 달라질 수 있는지 점검할 것.

핵심 SCENARIO: 확률은 낮지만 체제충격이 큰 대안을 항상 함께 볼 것.

부록 5. 지역별 세부 시나리오 플레이북

이 부록은 본문에서 제시한 전망을 실제 전략기획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세분화한 시나리오 플레이북이다. 각 시나리오는 촉발요인, 조기경보지표, 예상되는 국가행동, 경제·금융 충격, 정책적 의미를 요약한다.

유럽/우크라이나

촉발요인: 러시아의 대규모 공세, 서방 지원 피로, 우크라이나 방공 취약화.

조기경보: 장거리 미사일 사용량, 러시아 예산상 국방비 비중, 유럽 탄약생산, 우크라이나 전력망 피해.

파급효과: 유럽 방산주문 확대, 에너지 프리미엄 재상승, NATO 억지태세 강화.

ASSESSMENT: 유럽/우크라이나 시나리오의 핵심은 사건 자체보다 사건이 다른 체계로 얼마나 빨리 전이되는가이다. 정책결정자는 단일 지역 리스크가 에너지, 금융, 동맹, 정보전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동시에 점검해야 한다.

FORECAST: 유럽/우크라이나에서는 단발성 충격보다 반복적 압박과 불안정한 관리가 더 일반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반복성이 높아질수록 예상치 못한 오판이나 피로 누적에 따른 급격한 전환 위험도 커진다.

중동/호르무즈

촉발요인: 미군기지 피격, 유조선 공격, 이란 핵시설 또는 지휘시설 재타격.

조기경보: 호르무즈 통과량, 선박보험료, OPEC+ 대응, 미 해군 재배치.

파급효과: 유가 급등, 인플레이션 반등, 미군 중동 집중으로 인도태평양 전략 분산.

ASSESSMENT: 중동/호르무즈 시나리오의 핵심은 사건 자체보다 사건이 다른 체계로 얼마나 빨리 전이되는가이다. 정책결정자는 단일 지역 리스크가 에너지, 금융, 동맹, 정보전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동시에 점검해야 한다.

FORECAST: 중동/호르무즈에서는 단발성 충격보다 반복적 압박과 불안정한 관리가 더 일반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반복성이 높아질수록 예상치 못한 오판이나 피로 누적에 따른 급격한 전환 위험도 커진다.

대만해협

촉발요인: PLA 훈련 상시화, 해상검문 강화, 통신·위성 교란, 선거 또는 내정 변수.

조기경보: ADIZ 진입 횟수, 해경 활동, 선박 검색 통지, 미일 훈련 메시지.

파급효과: 반도체·해운·보험·FX 시장 급변, 미중 제재전 가능성.

ASSESSMENT: 대만해협 시나리오의 핵심은 사건 자체보다 사건이 다른 체계로 얼마나 빨리 전이되는가이다. 정책결정자는 단일 지역 리스크가 에너지, 금융, 동맹, 정보전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동시에 점검해야 한다.

FORECAST: 대만해협에서는 단발성 충격보다 반복적 압박과 불안정한 관리가 더 일반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반복성이 높아질수록 예상치 못한 오판이나 피로 누적에 따른 급격한 전환 위험도 커진다.

한반도

촉발요인: 북한 장거리미사일, 핵실험, NLL 충돌, 대남 선전·사이버 도발.

조기경보: 군 통신선 상태, 위성발사 준비, 북러 교류, 한미연합훈련 반응.

파급효과: 원화 변동성, 방산·방공 수요 증가, 역내 군사태세 상향.

ASSESSMENT: 한반도 시나리오의 핵심은 사건 자체보다 사건이 다른 체계로 얼마나 빨리 전이되는가이다. 정책결정자는 단일 지역 리스크가 에너지, 금융, 동맹, 정보전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동시에 점검해야 한다.

FORECAST: 한반도에서는 단발성 충격보다 반복적 압박과 불안정한 관리가 더 일반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반복성이 높아질수록 예상치 못한 오판이나 피로 누적에 따른 급격한 전환 위험도 커진다.

남중국해

촉발요인: 중국-필리핀 해상충돌, 미군의 항행작전 확대.

조기경보: 해경·민병대 활동, 국제중재 반응, ASEAN 성명.

파급효과: 해상보험 상승, 필리핀·미국 군사협력 심화.

ASSESSMENT: 남중국해 시나리오의 핵심은 사건 자체보다 사건이 다른 체계로 얼마나 빨리 전이되는가이다. 정책결정자는 단일 지역 리스크가 에너지, 금융, 동맹, 정보전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동시에 점검해야 한다.

FORECAST: 남중국해에서는 단발성 충격보다 반복적 압박과 불안정한 관리가 더 일반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반복성이 높아질수록 예상치 못한 오판이나 피로 누적에 따른 급격한 전환 위험도 커진다.

세계경제/금융

촉발요인: 유가 급등, 미국 장기금리 급등, 중국 부동산·금융충격.

조기경보: 10Y UST, DXY, CNH, 주요 은행 CDS, 산업용 금속 가격.

파급효과: 신흥국 자본유출, 안전자산 선호, 중앙은행 정책 딜레마.

ASSESSMENT: 세계경제/금융 시나리오의 핵심은 사건 자체보다 사건이 다른 체계로 얼마나 빨리 전이되는가이다. 정책결정자는 단일 지역 리스크가 에너지, 금융, 동맹, 정보전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동시에 점검해야 한다.

FORECAST: 세계경제/금융에서는 단발성 충격보다 반복적 압박과 불안정한 관리가 더 일반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반복성이 높아질수록 예상치 못한 오판이나 피로 누적에 따른 급격한 전환 위험도 커진다.

기술패권

촉발요인: 새로운 수출통제, 대형 AI 규제, 대만 공급망 충격.

조기경보: 미국 수출통제 발표, 중국 희토류·소재 조치, 하이퍼스케일러 CAPEX.

파급효과: 반도체 재고조정, 밸류체인 재편, 국가보조금 경쟁 확대.

ASSESSMENT: 기술패권 시나리오의 핵심은 사건 자체보다 사건이 다른 체계로 얼마나 빨리 전이되는가이다. 정책결정자는 단일 지역 리스크가 에너지, 금융, 동맹, 정보전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동시에 점검해야 한다.

FORECAST: 기술패권에서는 단발성 충격보다 반복적 압박과 불안정한 관리가 더 일반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반복성이 높아질수록 예상치 못한 오판이나 피로 누적에 따른 급격한 전환 위험도 커진다.

에너지·광물

촉발요인: 산유국 감산, 해협 봉쇄, 주요 광산국 정치불안.

조기경보: LNG 현물가, 구리·리튬 가격, 재고지표, 운송지연.

파급효과: 제조업 비용상승, 에너지전환 지연 또는 가속.

ASSESSMENT: 에너지·광물 시나리오의 핵심은 사건 자체보다 사건이 다른 체계로 얼마나 빨리 전이되는가이다. 정책결정자는 단일 지역 리스크가 에너지, 금융, 동맹, 정보전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동시에 점검해야 한다.

FORECAST: 에너지·광물에서는 단발성 충격보다 반복적 압박과 불안정한 관리가 더 일반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반복성이 높아질수록 예상치 못한 오판이나 피로 누적에 따른 급격한 전환 위험도 커진다.

Global South

촉발요인: 부채위기, 쿠데타, 식량·연료 폭등.

조기경보: IMF 프로그램 요청, 주권스프레드, 사회불안.

파급효과: 미중 영향력 경쟁 심화, 자원·기지 협상 변화.

ASSESSMENT: Global South 시나리오의 핵심은 사건 자체보다 사건이 다른 체계로 얼마나 빨리 전이되는가이다. 정책결정자는 단일 지역 리스크가 에너지, 금융, 동맹, 정보전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동시에 점검해야 한다.

FORECAST: Global South에서는 단발성 충격보다 반복적 압박과 불안정한 관리가 더 일반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반복성이 높아질수록 예상치 못한 오판이나 피로 누적에 따른 급격한 전환 위험도 커진다.

사이버·인지전

촉발요인: 대선·전쟁·제재와 결합한 대형 영향작전.

조기경보: 플랫폼 탐지, 딥페이크 급증, 금융·전력망 침해.

파급효과: 사회신뢰 훼손, 군사오판 가능성 상승.

ASSESSMENT: 사이버·인지전 시나리오의 핵심은 사건 자체보다 사건이 다른 체계로 얼마나 빨리 전이되는가이다. 정책결정자는 단일 지역 리스크가 에너지, 금융, 동맹, 정보전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동시에 점검해야 한다.

FORECAST: 사이버·인지전에서는 단발성 충격보다 반복적 압박과 불안정한 관리가 더 일반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반복성이 높아질수록 예상치 못한 오판이나 피로 누적에 따른 급격한 전환 위험도 커진다.

부록 6. 행위자별 목표·수단·제약 매트릭스

아래 매트릭스는 주요 행위자의 전략을 비교한 것이다. 정책의 일관성은 목표와 수단의 정렬 정도, 그리고 제약을 관리할 능력에서 결정된다.

행위자	전략목표	주요수단	핵심제약
미국	중국 억제·동맹유지	군사투사력·달러·제재·기술	부채·정치분열·다중전구
중국	체제안정·통일압박	제조업·미사일·국가동원	부동산·인구·금융
러시아	영향권 유지	핵·자원·전시경제	경제규모·기술
EU	안보·경제안정	시장·규제·공동조달	정치분열·군사통합부족
일본	대중 억지·동맹심화	해공군·기술·자본	인구·헌정제약
한국	북한 억지·경제안보	동맹·방산·반도체	북한상수·대외의존
북한	체제생존·강압억지	핵·미사일·사이버	경제·재래전력 질
인도	전략자율성·성장	인구·시장·지리	인프라·행정역량
이란	정권생존·억지	미사일·드론·대리세력	공군·경제
이스라엘	생존·이란억지	공군·정보·방공	장기전 피로
사우디	에너지·안정	석유·자본·외교다변화	군사취약성
대만	현상유지·방어	반도체·비대칭방위	외교공간 제한

미국

FACT: 미국의 공식 또는 관찰 가능한 전략목표는 중국 억제·동맹유지로 요약된다.

ASSESSMENT: 실제 성패는 군사투사력·달러·제재·기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결합하느냐, 그리고 부채·정치분열·다중전구라는 제약을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FORECAST: 향후 1~3년 동안 미국의 정책 선택은 국내정치·재정·전쟁상황·동맹관계의 변화에 따라 조정되겠지만, 기본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FACT: 중국의 공식 또는 관찰 가능한 전략목표는 체제안정·통일압박로 요약된다.

ASSESSMENT: 실제 성패는 제조업·미사일·국가동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결합하느냐, 그리고 부동산·인구·금융라는 제약을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FORECAST: 향후 1~3년 동안 중국의 정책 선택은 국내정치·재정·전쟁상황·동맹관계의 변화에 따라 조정되겠지만, 기본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

FACT: 러시아의 공식 또는 관찰 가능한 전략목표는 영향권 유지로 요약된다.

ASSESSMENT: 실제 성패는 핵·자원·전시경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결합하느냐, 그리고 경제규모·기술라는 제약을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FORECAST: 향후 1~3년 동안 러시아의 정책 선택은 국내정치·재정·전쟁상황·동맹관계의 변화에 따라 조정되겠지만, 기본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EU

FACT: EU의 공식 또는 관찰 가능한 전략목표는 안보·경제안정으로 요약된다.

ASSESSMENT: 실제 성패는 시장·규제·공동조달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결합하느냐, 그리고 정치분열·군사통합부족라는 제약을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FORECAST: 향후 1~3년 동안 EU의 정책 선택은 국내정치·재정·전쟁상황·동맹관계의 변화에 따라 조정되겠지만, 기본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FACT: 일본의 공식 또는 관찰 가능한 전략목표는 대중 억지·동맹심화로 요약된다.

ASSESSMENT: 실제 성패는 해공군·기술·자본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결합하느냐, 그리고 인구·현정 제약이라는 제약을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FORECAST: 향후 1~3년 동안 일본의 정책 선택은 국내정치·재정·전쟁상황·동맹관계의 변화에 따라 조정되겠지만, 기본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FACT: 한국의 공식 또는 관찰 가능한 전략목표는 북한 억지·경제안보로 요약된다.

ASSESSMENT: 실제 성패는 동맹·방산·반도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결합하느냐, 그리고 북한상수·대외의존라는 제약을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FORECAST: 향후 1~3년 동안 한국의 정책 선택은 국내정치·재정·전쟁상황·동맹관계의 변화에 따라 조정되겠지만, 기본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FACT: 북한의 공식 또는 관찰 가능한 전략목표는 체제생존·강압억지로 요약된다.

ASSESSMENT: 실제 성패는 핵·미사일·사이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결합하느냐, 그리고 경제·재래 전력 질라는 제약을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FORECAST: 향후 1~3년 동안 북한의 정책 선택은 국내정치·재정·전쟁상황·동맹관계의 변화에 따라 조정되겠지만, 기본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인도

FACT: 인도의 공식 또는 관찰 가능한 전략목표는 전략자율성·성장으로 요약된다.

ASSESSMENT: 실제 성패는 인구·시장·지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결합하느냐, 그리고 인프라·행정 역량라는 제약을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FORECAST: 향후 1~3년 동안 인도의 정책 선택은 국내정치·재정·전쟁상황·동맹관계의 변화에 따라 조정되겠지만, 기본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란

FACT: 이란의 공식 또는 관찰 가능한 전략목표는 정권생존·억지로 요약된다.

ASSESSMENT: 실제 성패는 미사일·드론·대리세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결합하느냐, 그리고 공군·경제라는 제약을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FORECAST: 향후 1~3년 동안 이란의 정책 선택은 국내정치·재정·전쟁상황·동맹관계의 변화에 따라 조정되겠지만, 기본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스라엘

FACT: 이스라엘의 공식 또는 관찰 가능한 전략목표는 생존·이란억지로 요약된다.

ASSESSMENT: 실제 성패는 공군·정보·방공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결합하느냐, 그리고 장기전 피로라는 제약을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FORECAST: 향후 1~3년 동안 이스라엘의 정책 선택은 국내정치·재정·전쟁상황·동맹관계의 변화에 따라 조정되겠지만, 기본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사우디

FACT: 사우디의 공식 또는 관찰 가능한 전략목표는 에너지·안정으로 요약된다.

ASSESSMENT: 실제 성패는 석유·자본·외교다변화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결합하느냐, 그리고 군사취약성라는 제약을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FORECAST: 향후 1~3년 동안 사우디의 정책 선택은 국내정치·재정·전쟁상황·동맹관계의 변화에 따라 조정되겠지만, 기본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대만

FACT: 대만의 공식 또는 관찰 가능한 전략목표는 현상유지·방어로 요약된다.

ASSESSMENT: 실제 성패는 반도체·비대칭방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결합하느냐, 그리고 외교공간 제한라는 제약을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FORECAST: 향후 1~3년 동안 대만의 정책 선택은 국내정치·재정·전쟁상황·동맹관계의 변화에 따라 조정되겠지만, 기본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부록 7. 2026년 9월~2027년 8월 월별 관찰 포인트

2026년 9월

미국-이란 교전 수위, 우크라이나 전선, 중국 3분기 경기지표, U.S. Treasury yields.

분석 포인트: 월별 이벤트를 사건단위로 보지 말고, 전쟁·에너지·금융·기술·동맹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관찰해야 한다. 같은 뉴스라도 어느 전장에 파급되는지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확인할 지표: 시장가격 + 공식발표 + 군사활동 빈도를 함께 볼 것.

체크할 질문: 구조적 방향이 바뀌는가, 아니면 일시적 노이즈인가?

메모: 전월 대비 변화와 누적효과를 구분할 것.

10월

유가와 가스가격, 미국·유럽 정치일정, 대만 주변 훈련빈도.

분석 포인트: 월별 이벤트를 사건단위로 보지 말고, 전쟁·에너지·금융·기술·동맹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관찰해야 한다. 같은 뉴스라도 어느 전장에 파급되는지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확인할 지표: 시장가격 + 공식발표 + 군사활동 빈도를 함께 볼 것.

체크할 질문: 구조적 방향이 바뀌는가, 아니면 일시적 노이즈인가?

메모: 전월 대비 변화와 누적효과를 구분할 것.

11월

미국 중간선거 정치환경이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 전쟁예산 논쟁.

분석 포인트: 월별 이벤트를 사건단위로 보지 말고, 전쟁·에너지·금융·기술·동맹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관찰해야 한다. 같은 뉴스라도 어느 전장에 파급되는지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확인할 지표: 시장가격 + 공식발표 + 군사활동 빈도를 함께 볼 것.

체크할 질문: 구조적 방향이 바뀌는가, 아니면 일시적 노이즈인가?

메모: 전월 대비 변화와 누적효과를 구분할 것.

12월

동절기 에너지 수급, 우크라이나 전력망, 연말 중국 성장정책 패키지.

분석 포인트: 월별 이벤트를 사건단위로 보지 말고, 전쟁·에너지·금융·기술·동맹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관찰해야 한다. 같은 뉴스라도 어느 전장에 파급되는지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확인할 지표: 시장가격 + 공식발표 + 군사활동 빈도를 함께 볼 것.

체크할 질문: 구조적 방향이 바뀌는가, 아니면 일시적 노이즈인가?

메모: 전월 대비 변화와 누적효과를 구분할 것.

2027년 1월

미국 예산·부채한도·금리 기대, 중동 휴전 지속성.

분석 포인트: 월별 이벤트를 사건단위로 보지 말고, 전쟁·에너지·금융·기술·동맹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관찰해야 한다. 같은 뉴스라도 어느 전장에 파급되는지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확인할 지표: 시장가격 + 공식발표 + 군사활동 빈도를 함께 볼 것.

체크할 질문: 구조적 방향이 바뀌는가, 아니면 일시적 노이즈인가?

메모: 전월 대비 변화와 누적효과를 구분할 것.

2월

이란 핵검증과 regional proxy activity, 북한 동절기 군사활동.

분석 포인트: 월별 이벤트를 사건단위로 보지 말고, 전쟁·에너지·금융·기술·동맹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관찰해야 한다. 같은 뉴스라도 어느 전장에 파급되는지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확인할 지표: 시장가격 + 공식발표 + 군사활동 빈도를 함께 볼 것.

체크할 질문: 구조적 방향이 바뀌는가, 아니면 일시적 노이즈인가?

메모: 전월 대비 변화와 누적효과를 구분할 것.

3월

중국 양회 신호, 유럽 방산예산, 일본 회계연도 방위조달.

분석 포인트: 월별 이벤트를 사건단위로 보지 말고, 전쟁·에너지·금융·기술·동맹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관찰해야 한다. 같은 뉴스라도 어느 전장에 파급되는지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확인할 지표: 시장가격 + 공식발표 + 군사활동 빈도를 함께 볼 것.

체크할 질문: 구조적 방향이 바뀌는가, 아니면 일시적 노이즈인가?

메모: 전월 대비 변화와 누적효과를 구분할 것.

4월

IMF/World Bank spring meetings, 글로벌 성장전망 수정치.

분석 포인트: 월별 이벤트를 사건단위로 보지 말고, 전쟁·에너지·금융·기술·동맹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관찰해야 한다. 같은 뉴스라도 어느 전장에 파급되는지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확인할 지표: 시장가격 + 공식발표 + 군사활동 빈도를 함께 볼 것.

체크할 질문: 구조적 방향이 바뀌는가, 아니면 일시적 노이즈인가?

메모: 전월 대비 변화와 누적효과를 구분할 것.

5월

NATO 정상급 조율, 유럽 재무장 진전도, 인도 성장 모멘텀.

분석 포인트: 월별 이벤트를 사건단위로 보지 말고, 전쟁·에너지·금융·기술·동맹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관찰해야 한다. 같은 뉴스라도 어느 전장에 파급되는지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확인할 지표: 시장가격 + 공식발표 + 군사활동 빈도를 함께 볼 것.

체크할 질문: 구조적 방향이 바뀌는가, 아니면 일시적 노이즈인가?

메모: 전월 대비 변화와 누적효과를 구분할 것.

6월

SIPRI·AI Index·에너지 수요 피크 전망, 태풍·기후 리스크.

분석 포인트: 월별 이벤트를 사건단위로 보지 말고, 전쟁·에너지·금융·기술·동맹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관찰해야 한다. 같은 뉴스라도 어느 전장에 파급되는지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확인할 지표: 시장가격 + 공식발표 + 군사활동 빈도를 함께 볼 것.

체크할 질문: 구조적 방향이 바뀌는가, 아니면 일시적 노이즈인가?

메모: 전월 대비 변화와 누적효과를 구분할 것.

7월

호르무즈 여름 수요기와 유가, 반도체 CAPEX, 대만 정치 일정.

분석 포인트: 월별 이벤트를 사건단위로 보지 말고, 전쟁·에너지·금융·기술·동맹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관찰해야 한다. 같은 뉴스라도 어느 전장에 파급되는지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확인할 지표: 시장가격 + 공식발표 + 군사활동 빈도를 함께 볼 것.

체크할 질문: 구조적 방향이 바뀌는가, 아니면 일시적 노이즈인가?

메모: 전월 대비 변화와 누적효과를 구분할 것.

8월

여름 군사훈련 시즌, 중국/러시아 공동활동, 시장 유동성 취약성.

분석 포인트: 월별 이벤트를 사건단위로 보지 말고, 전쟁·에너지·금융·기술·동맹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관찰해야 한다. 같은 뉴스라도 어느 전장에 파급되는지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확인할 지표: 시장가격 + 공식발표 + 군사활동 빈도를 함께 볼 것.

체크할 질문: 구조적 방향이 바뀌는가, 아니면 일시적 노이즈인가?

메모: 전월 대비 변화와 누적효과를 구분할 것.

부록 8. 핵심 개념·용어 해설

De-risking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되 완전한 분리를 추구하지 않는 전략.

전략적 의미: 이 용어는 단어 정의보다 정책도구와 연결해 이해해야 한다. 예컨대 de-risking은 무역 정책, 산업보조금, 투자심사, 수출통제를 동시에 수반할 수 있다.

Decoupling

무역·기술·금융·공급망의 구조적 분리.

전략적 의미: 이 용어는 단어 정의보다 정책도구와 연결해 이해해야 한다. 예컨대 de-risking은 무역 정책, 산업보조금, 투자심사, 수출통제를 동시에 수반할 수 있다.

Friend-shoring

동맹 또는 우호국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하는 전략.

전략적 의미: 이 용어는 단어 정의보다 정책도구와 연결해 이해해야 한다. 예컨대 de-risking은 무역 정책, 산업보조금, 투자심사, 수출통제를 동시에 수반할 수 있다.

Selective decoupling

전략산업만 선별적으로 분리하는 방식.

전략적 의미: 이 용어는 단어 정의보다 정책도구와 연결해 이해해야 한다. 예컨대 de-risking은 무역 정책, 산업보조금, 투자심사, 수출통제를 동시에 수반할 수 있다.

Extended deterrence

동맹국에 대한 핵·재래식 억지 제공.

전략적 의미: 이 용어는 단어 정의보다 정책도구와 연결해 이해해야 한다. 예컨대 de-risking은 무역 정책, 산업보조금, 투자심사, 수출통제를 동시에 수반할 수 있다.

Escalation dominance

상대보다 위기상승 사다리에서 우위를 가지는 능력.

전략적 의미: 이 용어는 단어 정의보다 정책도구와 연결해 이해해야 한다. 예컨대 de-risking은 무역 정책, 산업보조금, 투자심사, 수출통제를 동시에 수반할 수 있다.

Gray-zone operations

전면전 이하에서 군사·준군사·법집행·정보전을 결합하는 강압행동.

전략적 의미: 이 용어는 단어 정의보다 정책도구와 연결해 이해해야 한다. 예컨대 de-risking은 무역 정책, 산업보조금, 투자심사, 수출통제를 동시에 수반할 수 있다.

A2/AD

상대의 접근과 기동을 거부하는 방어/공세 체계.

전략적 의미: 이 용어는 단어 정의보다 정책도구와 연결해 이해해야 한다. 예컨대 de-risking 은 무역 정책, 산업보조금, 투자심사, 수출통제를 동시에 수반할 수 있다.

Threshold state

핵무기 보유 직전 수준의 능력을 가진 국가.

전략적 의미: 이 용어는 단어 정의보다 정책도구와 연결해 이해해야 한다. 예컨대 de-risking 은 무역 정책, 산업보조금, 투자심사, 수출통제를 동시에 수반할 수 있다.

Strategic ambiguity

의도적 불확실성을 통해 억지와 유연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전략적 의미: 이 용어는 단어 정의보다 정책도구와 연결해 이해해야 한다. 예컨대 de-risking 은 무역 정책, 산업보조금, 투자심사, 수출통제를 동시에 수반할 수 있다.

Industrial mobilization

전시 또는 위기 시 국가가 산업생산을 전환·증대하는 능력.

전략적 의미: 이 용어는 단어 정의보다 정책도구와 연결해 이해해야 한다. 예컨대 de-risking 은 무역 정책, 산업보조금, 투자심사, 수출통제를 동시에 수반할 수 있다.

Dual-use technology

민간과 군사에 모두 활용되는 기술.

전략적 의미: 이 용어는 단어 정의보다 정책도구와 연결해 이해해야 한다. 예컨대 de-risking 은 무역 정책, 산업보조금, 투자심사, 수출통제를 동시에 수반할 수 있다.

Cognitive warfare

상대 사회의 인식·판단·의사결정을 교란하는 전략.

전략적 의미: 이 용어는 단어 정의보다 정책도구와 연결해 이해해야 한다. 예컨대 de-risking 은 무역 정책, 산업보조금, 투자심사, 수출통제를 동시에 수반할 수 있다.

Sanctions resilience

제재를 견디거나 우회하는 국가의 제도적 능력.

전략적 의미: 이 용어는 단어 정의보다 정책도구와 연결해 이해해야 한다. 예컨대 de-risking 은 무역 정책, 산업보조금, 투자심사, 수출통제를 동시에 수반할 수 있다.

Weaponized interdependence

상호의존 구조 자체를 압박수단으로 활용하는 현상.

전략적 의미: 이 용어는 단어 정의보다 정책도구와 연결해 이해해야 한다. 예컨대 de-risking은 무역 정책, 산업보조금, 투자심사, 수출통제를 동시에 수반할 수 있다.

부록 9. 정책결정자용 실무 체크리스트

미국 전략

무엇이 사실인가? 누가 공식적으로 확인했는가?

어떤 구조적 동인이 작동하는가?

행위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가용 수단은 무엇이며 한계는 무엇인가?

다음 1개월·6개월·1년 안에 확인해야 할 조기경보지표는 무엇인가?

이 사건이 경제·금융·에너지·동맹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지는가?

이 체크리스트는 연구자, 언론인, 투자자, 정책실무자가 사건의 본질과 파급효과를 동시에 읽기 위해 고안되었다. 단일 기사나 단발성 데이터보다, 연속성과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 경제

무엇이 사실인가? 누가 공식적으로 확인했는가?

어떤 구조적 동인이 작동하는가?

행위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가용 수단은 무엇이며 한계는 무엇인가?

다음 1개월·6개월·1년 안에 확인해야 할 조기경보지표는 무엇인가?

이 사건이 경제·금융·에너지·동맹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지는가?

이 체크리스트는 연구자, 언론인, 투자자, 정책실무자가 사건의 본질과 파급효과를 동시에 읽기 위해 고안되었다. 단일 기사나 단발성 데이터보다, 연속성과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러시아 전쟁지속능력

무엇이 사실인가? 누가 공식적으로 확인했는가?

어떤 구조적 동인이 작동하는가?

행위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가용 수단은 무엇이며 한계는 무엇인가?

다음 1개월·6개월·1년 안에 확인해야 할 조기경보지표는 무엇인가?

이 사건이 경제·금융·에너지·동맹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지는가?

이 체크리스트는 연구자, 언론인, 투자자, 정책실무자가 사건의 본질과 파급효과를 동시에 읽기 위해 고안되었다. 단일 기사나 단발성 데이터보다, 연속성과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 재무장

무엇이 사실인가? 누가 공식적으로 확인했는가?

어떤 구조적 동인이 작동하는가?

행위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가용 수단은 무엇이며 한계는 무엇인가?

다음 1개월·6개월·1년 안에 확인해야 할 조기경보지표는 무엇인가?

이 사건이 경제·금융·에너지·동맹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지는가?

이 체크리스트는 연구자, 언론인, 투자자, 정책실무자가 사건의 본질과 파급효과를 동시에 읽기 위해 고안되었다. 단일 기사나 단발성 데이터보다, 연속성과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동 확전위험

무엇이 사실인가? 누가 공식적으로 확인했는가?

어떤 구조적 동인이 작동하는가?

행위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가용 수단은 무엇이며 한계는 무엇인가?

다음 1개월·6개월·1년 안에 확인해야 할 조기경보지표는 무엇인가?

이 사건이 경제·금융·에너지·동맹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지는가?

이 체크리스트는 연구자, 언론인, 투자자, 정책실무자가 사건의 본질과 파급효과를 동시에 읽기 위해 고안되었다. 단일 기사나 단발성 데이터보다, 연속성과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만해협

무엇이 사실인가? 누가 공식적으로 확인했는가?

어떤 구조적 동인이 작동하는가?

행위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가용 수단은 무엇이며 한계는 무엇인가?

다음 1개월·6개월·1년 안에 확인해야 할 조기경보지표는 무엇인가?

이 사건이 경제·금융·에너지·동맹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지는가?

이 체크리스트는 연구자, 언론인, 투자자, 정책실무자가 사건의 본질과 파급효과를 동시에 읽기 위해 고안되었다. 단일 기사나 단발성 데이터보다, 연속성과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무엇이 사실인가? 누가 공식적으로 확인했는가?

어떤 구조적 동인이 작동하는가?

행위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가용 수단은 무엇이며 한계는 무엇인가?

다음 1개월·6개월·1년 안에 확인해야 할 조기경보지표는 무엇인가?

이 사건이 경제·금융·에너지·동맹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지는가?

이 체크리스트는 연구자, 언론인, 투자자, 정책실무자가 사건의 본질과 파급효과를 동시에 읽기 위해 고안되었다. 단일 기사나 단발성 데이터보다, 연속성과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경제·금융

무엇이 사실인가? 누가 공식적으로 확인했는가?

어떤 구조적 동인이 작동하는가?

행위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가용 수단은 무엇이며 한계는 무엇인가?

다음 1개월·6개월·1년 안에 확인해야 할 조기경보지표는 무엇인가?

이 사건이 경제·금융·에너지·동맹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지는가?

이 체크리스트는 연구자, 언론인, 투자자, 정책실무자가 사건의 본질과 파급효과를 동시에 읽기 위해 고안되었다. 단일 기사나 단발성 데이터보다, 연속성과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광물

무엇이 사실인가? 누가 공식적으로 확인했는가?

어떤 구조적 동인이 작동하는가?

행위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가용 수단은 무엇이며 한계는 무엇인가?

다음 1개월·6개월·1년 안에 확인해야 할 조기경보지표는 무엇인가?

이 사건이 경제·금융·에너지·동맹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지는가?

이 체크리스트는 연구자, 언론인, 투자자, 정책실무자가 사건의 본질과 파급효과를 동시에 읽기 위해 고안되었다. 단일 기사나 단발성 데이터보다, 연속성과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패권

무엇이 사실인가? 누가 공식적으로 확인했는가?

어떤 구조적 동인이 작동하는가?

행위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가용 수단은 무엇이며 한계는 무엇인가?

다음 1개월·6개월·1년 안에 확인해야 할 조기경보지표는 무엇인가?

이 사건이 경제·금융·에너지·동맹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지는가?

이 체크리스트는 연구자, 언론인, 투자자, 정책실무자가 사건의 본질과 파급효과를 동시에 읽기 위해 고안되었다. 단일 기사나 단발성 데이터보다, 연속성과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이버·인지전

무엇이 사실인가? 누가 공식적으로 확인했는가?

어떤 구조적 동인이 작동하는가?

행위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가용 수단은 무엇이며 한계는 무엇인가?

다음 1개월·6개월·1년 안에 확인해야 할 조기경보지표는 무엇인가?

이 사건이 경제·금융·에너지·동맹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지는가?

이 체크리스트는 연구자, 언론인, 투자자, 정책실무자가 사건의 본질과 파급효과를 동시에 읽기 위해 고안되었다. 단일 기사나 단발성 데이터보다, 연속성과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록 10. 국가·지역별 심화 메모

본 부록은 정책·투자·언론 실무에서 자주 필요한 국가별 핵심 메모를 요약한다. 각 메모는 구조적 힘, 현재 전략, 주시해야 할 변수, 예상되는 변곡점을 짧게 정리한 것이다.

미국

미국의 전략적 우위는 달러와 국채시장, 해군과 공군, 핵전력, 동맹, 실리콘밸리와 연구대학, 거대한 소비시장과 에너지 생산능력이 결합된 네트워크 권력에서 나온다. 그러나 미국은 동시에 국가부채, 정치 양극화, 다중전구 부담이라는 비용을 떠안고 있다.

미국은 향후 수년간 중국 억제를 전략의 중심에 둘 가능성이 높지만, 러시아와 이란, 북한 같은 지역 교란세력이 미국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패턴은 계속될 수 있다. 미국의 핵심 경쟁우위는 위기 시 동맹과 자본이 미국으로 모인다는 점이다.

주시할 변수: 미국의 국내정치 변화가 대외전략을 바꿀 가능성.

핵심 질문: 미국이 가장 우선하는 안보·경제 목표는 무엇인가.

실무 포인트: 미국 관련 뉴스는 주변 동맹 및 공급망과 연결해 해석할 것.

중국

중국은 제조업과 공급망 통제, 조선, 배터리, 전기차, 드론, 희토류 정제, 국가동원 역량에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금융개방의 한계와 부동산 침체, 지방정부 부채, 인구감소는 장기전략의 부담이다.

중국은 전면적 체제대결을 원하기보다 미국 주도의 질서 비용을 높이고 자국의 행동반경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대만 문제는 장기 목표이지만, 당장 가장 실용적인 전략은 지속적 강압과 회색지대 압박이다.

주시할 변수: 중국의 국내정치 변화가 대외전략을 바꿀 가능성.

핵심 질문: 중국이 가장 우선하는 안보·경제 목표는 무엇인가.

실무 포인트: 중국 관련 뉴스는 주변 동맹 및 공급망과 연결해 해석할 것.

러시아

러시아는 GDP 규모만 보면 초강대국이 아니지만, 핵전력, 에너지, 미사일, 전시경제, 정보전, 전쟁 감수성에서 큰 전략효과를 낼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체제의 회복력과 동시에 장기적 비용을 모두 보여준다.

러시아의 핵심 목표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통해 유럽 안보질서를 다시 쓰는 것이다. 완전한 군사적 승리보다 서방의 결속을 약화시키고 우크라이나의 전략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 목적일 수 있다.

주시할 변수: 러시아의 국내정치 변화가 대외전략을 바꿀 가능성.

핵심 질문: 러시아가 가장 우선하는 안보·경제 목표는 무엇인가.

실무 포인트: 러시아 관련 뉴스는 주변 동맹 및 공급망과 연결해 해석할 것.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의 강점은 높은 국가생존 의지, 드론과 민간기술 혁신, 서방의 정치적 공감대다. 약점은 인력과 탄약, 방공, 장기 재정지속성의 제약이다.

우크라이나의 최우선 목표는 국가주권 유지와 추가 영토 상실 방지다. 장기적으로는 군사력만이 아니라 안보보장, 재건금융, 방산생산 기반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주시할 변수: 우크라이나의 국내정치 변화가 대외전략을 바꿀 가능성.

핵심 질문: 우크라이나에 가장 우선하는 안보·경제 목표는 무엇인가.

실무 포인트: 우크라이나 관련 뉴스는 주변 동맹 및 공급망과 연결해 해석할 것.

독일

독일은 유럽 최대 경제력을 바탕으로 안보정책의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재무장과 산업정책, 에너지 재구성, EU 리더십 사이의 균형이 독일 전략의 핵심이다.

독일은 전후 안보문화의 제약을 완전히 벗지는 못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방위비와 조달 체계는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주시할 변수: 독일의 국내정치 변화가 대외전략을 바꿀 가능성.

핵심 질문: 독일이 가장 우선하는 안보·경제 목표는 무엇인가.

실무 포인트: 독일 관련 뉴스는 주변 동맹 및 공급망과 연결해 해석할 것.

프랑스

프랑스는 EU 안에서 군사력과 외교전통, 핵억지, 아프리카·지중해 영향력을 결합한 독특한 행위자다. 전략자율성 담론의 중심국이기도 하다.

프랑스의 과제는 미국 의존 없이도 유럽의 안보역량을 높이겠다는 비전과, 실제 재정·산업·동맹 현실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이다.

주시할 변수: 프랑스의 국내정치 변화가 대외전략을 바꿀 가능성.

핵심 질문: 프랑스에 가장 우선하는 안보·경제 목표는 무엇인가.

실무 포인트: 프랑스 관련 뉴스는 주변 동맹 및 공급망과 연결해 해석할 것.

영국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NATO와 Five Eyes, 대미 정보협력, 해군력, 금융도시 런던을 기반으로 큰 영향력을 유지한다.

영국은 유럽 대륙정치에서는 한발 떨어져 있지만, 안보·정보·우크라이나 지원에서는 여전히 핵심 플레이어이다.

주시할 변수: 영국의 국내정치 변화가 대외전략을 바꿀 가능성.

핵심 질문: 영국이 가장 우선하는 안보·경제 목표는 무엇인가.

실무 포인트: 영국 관련 뉴스는 주변 동맹 및 공급망과 연결해 해석할 것.

폴란드

폴란드는 유럽의 전방국가로서 대러 역지의 중심에 서 있다. 대규모 재무장과 대미협력, 우크라이나 지원은 폴란드의 전략정체성을 바꾸고 있다.

향후 폴란드는 독일·프랑스와 다른 안보감각을 가진 유럽의 하드파워 축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주시할 변수: 폴란드의 국내정치 변화가 대외전략을 바꿀 가능성.

핵심 질문: 폴란드가 가장 우선하는 안보·경제 목표는 무엇인가.

실무 포인트: 폴란드 관련 뉴스는 주변 동맹 및 공급망과 연결해 해석할 것.

튀르키예

튀르키예는 NATO 회원국이면서도 러시아, 중동, 중앙아시아와 다면적 관계를 갖는 전형적 전략자울 성 국가다.

흑해, 시리아, 에너지 허브, 방산수출, 국내정치가 결합되면서 튀르키예는 항상 거래 가능한 파트너이면서도 완전히 예측 가능하지는 않은 행위자로 남는다.

주시할 변수: 튀르키예의 국내정치 변화가 대외전략을 바꿀 가능성.

핵심 질문: 튀르키예가 가장 우선하는 안보·경제 목표는 무엇인가.

실무 포인트: 튀르키예 관련 뉴스는 주변 동맹 및 공급망과 연결해 해석할 것.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정보, 공군, 미사일방어, 기술생태계, 미국과의 특수관계를 기반으로 높은 군사력을 유지한다.

그러나 장기전의 정치·사회적 비용, 가자와 레바논, 이란과의 다중전선 문제는 이스라엘 전략의 부담이다.

주시할 변수: 이스라엘의 국내정치 변화가 대외전략을 바꿀 가능성.

핵심 질문: 이스라엘이 가장 우선하는 안보·경제 목표는 무엇인가.

실무 포인트: 이스라엘 관련 뉴스는 주변 동맹 및 공급망과 연결해 해석할 것.

이란

이란은 재래식 공군과 경제규모에서는 열세지만, 미사일, 드론, 해협위협, 대리세력, 체제보안 능력으로 상대의 비용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이란의 핵심 목표는 정권생존과 억지다. 핵프로그램은 외교협상의 카드이자 생존보험으로 기능한다.

주시할 변수: 이란의 국내정치 변화가 대외전략을 바꿀 가능성.

핵심 질문: 이란이 가장 우선하는 안보·경제 목표는 무엇인가.

실무 포인트: 이란 관련 뉴스는 주변 동맹 및 공급망과 연결해 해석할 것.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는 세계 에너지시장과 국부펀드, Vision 2030, 미국 안보관계를 결합해 중동질서의 핵심 허브가 되려 한다.

사우디의 전략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다변화, 외교는 다중정렬이라는 세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주시할 변수: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내정치 변화가 대외전략을 바꿀 가능성.

핵심 질문: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우선하는 안보·경제 목표는 무엇인가.

실무 포인트: 사우디아라비아 관련 뉴스는 주변 동맹 및 공급망과 연결해 해석할 것.

UAE

UAE는 물류·항공·항만·금융 허브와 외교 민첩성을 결합해 중동의 중개국가로 부상했다.

UAE는 안보상 미국과 가깝지만, 경제·투자 차원에서는 중국, 인도, 유럽과도 적극적으로 연결된다.

주시할 변수: UAE의 국내정치 변화가 대외전략을 바꿀 가능성.

핵심 질문: UAE가 가장 우선하는 안보·경제 목표는 무엇인가.

실무 포인트: UAE 관련 뉴스는 주변 동맹 및 공급망과 연결해 해석할 것.

카타르

카타르는 LNG 강국이자 중동 외교중재의 핵심국가다. 작은 국가이지만 큰 외교적 영향력을 갖는다.

에너지 수출, 미군기지, 중재외교가 카타르의 힘이며, 지역분쟁이 심화될수록 카타르의 외교적 가치도 높아진다.

주시할 변수: 카타르의 국내정치 변화가 대외전략을 바꿀 가능성.

핵심 질문: 카타르가 가장 우선하는 안보·경제 목표는 무엇인가.

실무 포인트: 카타르 관련 뉴스는 주변 동맹 및 공급망과 연결해 해석할 것.

인도

인도는 인구, 성장률, 인도양 위치, 핵보유국 지위, IT·서비스 산업을 바탕으로 장기 상승 잠재력이 크다.

인도는 공식 동맹보다 전략자율성을 선호하면서도 미국과의 기술·안보협력을 심화시키는 독특한 균형 전략을 유지할 것이다.

주시할 변수: 인도의 국내정치 변화가 대외전략을 바꿀 가능성.

핵심 질문: 인도가 가장 우선하는 안보·경제 목표는 무엇인가.

실무 포인트: 인도 관련 뉴스는 주변 동맹 및 공급망과 연결해 해석할 것.

일본

일본은 방위비 확대, 반격능력, 미일동맹, 기술력, 자본을 결합해 동아시아 억지체계의 핵심축이 되고 있다.

에너지·식량 의존과 인구구조는 약점이지만, 국가역량과 제도 신뢰는 매우 높다.

주시할 변수: 일본의 국내정치 변화가 대외전략을 바꿀 가능성.

핵심 질문: 일본이 가장 우선하는 안보·경제 목표는 무엇인가.

실무 포인트: 일본 관련 뉴스는 주변 동맹 및 공급망과 연결해 해석할 것.

한국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고도 산업기반과 한미동맹을 동시에 가진 중견 강국이다.

한국은 북핵 위협, 중국과의 경제의존, 일본과의 협력, 미국과의 동맹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복합 외교환경에 놓여 있다.

주시할 변수: 한국의 국내정치 변화가 대외전략을 바꿀 가능성.

핵심 질문: 한국이 가장 우선하는 안보·경제 목표는 무엇인가.

실무 포인트: 한국 관련 뉴스는 주변 동맹 및 공급망과 연결해 해석할 것.

대만

대만은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이자 미중 전략경쟁의 가장 민감한 접점이다.

대만의 강점은 기술산업과 방어의지, 약점은 외교공간의 제약과 해상봉쇄 취약성이다.

주시할 변수: 대만의 국내정치 변화가 대외전략을 바꿀 가능성.

핵심 질문: 대만이 가장 우선하는 안보·경제 목표는 무엇인가.

실무 포인트: 대만 관련 뉴스는 주변 동맹 및 공급망과 연결해 해석할 것.

북한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사이버역량, 예측불가성으로 자신보다 훨씬 큰 국가들의 계산을 복잡하게 만든다.

북한의 전략은 체제생존을 위한 강압억지이며, 경제적 합리성보다 정치군사적 생존논리가 우선한다.

주시할 변수: 북한의 국내정치 변화가 대외전략을 바꿀 가능성.

핵심 질문: 북한이 가장 우선하는 안보·경제 목표는 무엇인가.

실무 포인트: 북한 관련 뉴스는 주변 동맹 및 공급망과 연결해 해석할 것.

ASEAN

ASEAN은 단일 안보블록이 아니지만, 동남아시아의 전략적 중립성과 중심성을 유지하려는 집합적 본능을 갖고 있다.

실제 정책은 각국이 다르지만, 미중 경쟁 속에서 완전한 줄서기를 피하려는 경향은 공통적이다.

주시할 변수: ASEAN의 국내정치 변화가 대외전략을 바꿀 가능성.

핵심 질문: ASEAN이 가장 우선하는 안보·경제 목표는 무엇인가.

실무 포인트: ASEAN 관련 뉴스는 주변 동맹 및 공급망과 연결해 해석할 것.

부록 11. 분야별 심화 해설

세계경제를 체계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지정학 뉴스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구조적 기초를 함께 이해해야 한다. 아래 해설은 투자·언론·정책분석에 자주 필요한 주제를 확장 설명한다.

미국 재정과 패권

미국의 부채 증가는 달러 패권 붕괴의 즉각적 신호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의 유연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국방, 복지, 이자지출이 동시에 확대될수록 전략자원 배분이 어려워진다.

패권은 힘의 총량만이 아니라 그 힘을 감당할 재정능력에도 달려 있다. 따라서 U.S. Treasury market 과 정치적 예산갈등은 국제경제 분석에서 핵심 변수다.

핵심 지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2~3 개 수치를 추적할 것.

핵심 질문: 이 분야의 변화가 지정학과 시장에 어떻게 동시에 반영되는가?

주의사항: 단기 이벤트와 장기 구조변화를 혼동하지 말 것.

중국 부동산과 성장모델

중국의 성장모델은 부동산·인프라 투자에서 첨단제조와 수출, 기술자립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전환은 불가피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성장둔화와 금융불안을 동반할 수 있다.

중국 경제를 볼 때 headline GDP 보다 소비, 민간투자, 지방정부 재정, 청년고용, 부동산 완공·판매를 함께 봐야 한다.

핵심 지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2~3 개 수치를 추적할 것.

핵심 질문: 이 분야의 변화가 지정학과 시장에 어떻게 동시에 반영되는가?

주의사항: 단기 이벤트와 장기 구조변화를 혼동하지 말 것.

유럽 에너지 구조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낮아졌다고 해서 에너지 지정학이 끝난 것은 아니다. LNG, 전력망, 저장능력, 기후, 중동 위험이 유럽 물가와 산업경쟁력에 계속 영향을 준다.

에너지 비용은 유럽 제조업 경쟁력과 정치적 불만의 중요한 배경이다.

핵심 지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2~3 개 수치를 추적할 것.

핵심 질문: 이 분야의 변화가 지정학과 시장에 어떻게 동시에 반영되는가?

주의사항: 단기 이벤트와 장기 구조변화를 혼동하지 말 것.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는 설계, 장비, 소재, 제조, 패키징,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생태계다. 한 국가가 전체를 독점하기 어렵고, 그래서 지정학적 취약성도 크다.

대만, 미국, 일본, 한국, 네덜란드가 결합된 밸류체인이 현대 기술질서의 핵심축이다.

핵심 지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2~3 개 수치를 추적할 것.

핵심 질문: 이 분야의 변화가 지정학과 시장에 어떻게 동시에 반영되는가?

주의사항: 단기 이벤트와 장기 구조변화를 혼동하지 말 것.

AI와 전력

AI 경쟁은 데이터와 알고리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데이터센터, 전력, 냉각, 자본, 고급 칩,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AI 투자는 전력망, 원전, 가스발전, 송전 인프라와 직결되며, 이는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바꾼다.

핵심 지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2~3 개 수치를 추적할 것.

핵심 질문: 이 분야의 변화가 지정학과 시장에 어떻게 동시에 반영되는가?

주의사항: 단기 이벤트와 장기 구조변화를 혼동하지 말 것.

드론 혁명

우크라이나전은 소형 저가 드론이 전장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줬다. 드론은 ISR, 공격, 해상방어, 후방 타격, 심리전까지 수행한다.

드론 혁명은 군수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소프트웨어·전자전·배터리·통신의 중요성을 높인다.

핵심 지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2~3 개 수치를 추적할 것.

핵심 질문: 이 분야의 변화가 지정학과 시장에 어떻게 동시에 반영되는가?

주의사항: 단기 이벤트와 장기 구조변화를 혼동하지 말 것.

제재와 경제전

현대 제재는 금융, 물류, 해상보험, 기술이전, 부품, 수출통제까지 포괄한다. 제재의 효과는 표적국 경제를 직접 약화시키는 것뿐 아니라 제 3 국의 행동을 바꾸는 데 있다.

다만 제재는 장기화될수록 우회 네트워크와 적응 메커니즘을 낳는다.

핵심 지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2~3 개 수치를 추적할 것.

핵심 질문: 이 분야의 변화가 지정학과 시장에 어떻게 동시에 반영되는가?

주의사항: 단기 이벤트와 장기 구조변화를 혼동하지 말 것.

해운과 보험

해상무역은 글로벌 경제의 혈관이다. 해협, 항만, 컨테이너 운임, 선박보험, 선박추적은 지정학을 즉각 가격으로 바꾸는 장치다.

호르무즈와 홍해, 남중국해는 단지 군사전장만이 아니라 운송비와 공급망의 결절점이다.

핵심 지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2~3 개 수치를 추적할 것.

핵심 질문: 이 분야의 변화가 지정학과 시장에 어떻게 동시에 반영되는가?

주의사항: 단기 이벤트와 장기 구조변화를 혼동하지 말 것.

식량과 비료

전쟁과 기후, 에너지 가격은 식량과 비료 가격을 통해 정치 불안으로 연결된다. 밀, 옥수수, 쌀, 비료, 수자원, 해상운송은 개발도상국 안정성과 밀접하다.

식량위기는 종종 국가부도나 사회불안, 난민문제와 결합한다.

핵심 지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2~3 개 수치를 추적할 것.

핵심 질문: 이 분야의 변화가 지정학과 시장에 어떻게 동시에 반영되는가?

주의사항: 단기 이벤트와 장기 구조변화를 혼동하지 말 것.

기후와 안보

기후변화는 단독 원인보다는 안보위험의 증폭기다. 홍수, 가뭄, 폭염, 산불은 식량, 전력, 보험, 인프라, 난민 문제와 결합해 국가취약성을 높인다.

특히 취약국가에서는 기후충격이 곧바로 정치·인도주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

핵심 지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2~3 개 수치를 추적할 것.

핵심 질문: 이 분야의 변화가 지정학과 시장에 어떻게 동시에 반영되는가?

주의사항: 단기 이벤트와 장기 구조변화를 혼동하지 말 것.

인구와 노동력

미국·유럽·일본·한국·중국 모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인구구조 문제를 안고 있다. 청년층, 이민, 생산가능인구, 군복무 인력, 복지재정이 모두 전략능력에 영향을 준다.

장기적으로 강대국 경쟁은 군사력뿐 아니라 노동력과 혁신인력 확보 경쟁이기도 하다.

핵심 지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2~3 개 수치를 추적할 것.

핵심 질문: 이 분야의 변화가 지정학과 시장에 어떻게 동시에 반영되는가?

주의사항: 단기 이벤트와 장기 구조변화를 혼동하지 말 것.

우주와 위성

현대 군사력과 경제는 위성에 깊게 의존한다. GPS, 통신, 정찰, 금융시간 동기화, 물류가 위성과 연결된다.

우주공간의 군사화가 심화될수록 위성 보호와 대체능력이 새로운 전략자산이 된다.

핵심 지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2~3 개 수치를 추적할 것.

핵심 질문: 이 분야의 변화가 지정학과 시장에 어떻게 동시에 반영되는가?

주의사항: 단기 이벤트와 장기 구조변화를 혼동하지 말 것.

부록 12. 전략적 논쟁과 쟁점별 확장 메모

이 부록은 세계경제를 해석할 때 자주 등장하는 전략적 논쟁을 정리한다. 각 논점은 단순 찬반이 아니라 무엇이 실제 정책과 시장, 안보구조를 움직이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미국 쇠퇴론은 과장되었는가?

미국 쇠퇴론은 반복적으로 등장하지만, 군사·금융·기술·동맹 네트워크를 종합하면 미국의 절대적 우위는 여전히 크다. 다만 쇠퇴론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다. 현재의 핵심은 힘의 소멸이 아니라 힘의 운 영비용 상승이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가장 강하지만, 더 많은 부채와 더 큰 국내 분열, 더 복잡한 다중전구 부담 속에서 그 힘을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미국은 쇠퇴하는가?”가 아니라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우위를 재조정하는가?”이다.

핵심 질문: 이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실증 지표는 무엇인가?

정책 함의: 해당 논쟁이 실제 외교·안보·산업정책으로 이어질 때 무엇이 달라지는가?

시장 함의: 에너지, 금리, 방산, 기술주, 해운, 통화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가?

중국은 미국을 추월할 수 있는가?

총량 GDP 나 제조업, 일부 산업 부문에서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축통화, 고등교육·연구생태계, 글로벌 동맹망, 금융시장 심도, 법적 신뢰는 미국의 핵심 우위로 남아 있다.

중국의 진정한 경쟁력은 미국 대체가 아니라 미국 우위를 비싸고 어렵게 만드는 데 있다. 따라서 추월 여부보다 미국의 자유행동을 얼마나 제약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핵심 질문: 이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실증 지표는 무엇인가?

정책 함의: 해당 논쟁이 실제 외교·안보·산업정책으로 이어질 때 무엇이 달라지는가?

시장 함의: 에너지, 금리, 방산, 기술주, 해운, 통화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가?

러시아는 약한가, 위험한가?

러시아는 경제력만 보면 취약하지만, 핵전력과 자원, 미사일, 전쟁 감수성, 정보전 능력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러시아의 위협은 종종 과소평가와 과대평가가 동시에 발생한다.

정확한 평가는 러시아가 모든 분야에서 강해지는 않지만, 유럽 안보질서를 흔들고 서방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데는 충분히 위험하다는 것이다.

핵심 질문: 이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실증 지표는 무엇인가?

정책 함의: 해당 논쟁이 실제 외교·안보·산업정책으로 이어질 때 무엇이 달라지는가?

시장 함의: 에너지, 금리, 방산, 기술주, 해운, 통화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가?

유럽은 미국 없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가?

단기적으로는 어렵다. 특히 핵우산, 전략수송, ISR, 군수·병참, 미사일방어, 고강도 전쟁지속능력에서 미국 역할이 여전히 크다.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유럽이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절된 힘을 통합하는 정치가 느리다는 문제가 더 크다.

핵심 질문: 이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실증 지표는 무엇인가?

정책 함의: 해당 논쟁이 실제 외교·안보·산업정책으로 이어질 때 무엇이 달라지는가?

시장 함의: 에너지, 금리, 방산, 기술주, 해운, 통화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가?

이란은 실제 핵무장을 원하는가?

이란이 즉시 공개적 핵무장국이 되기를 원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threshold state 로 남는 것만으로도 큰 전략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란에게 핵은 군사기술이라기보다 체제생존과 억지력, 협상지렛대의 복합 자산이다. 따라서 문제는 단순한 의도보다 감시와 검증의 공백이 커질 때 발생한다.

핵심 질문: 이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실증 지표는 무엇인가?

정책 함의: 해당 논쟁이 실제 외교·안보·산업정책으로 이어질 때 무엇이 달라지는가?

시장 함의: 에너지, 금리, 방산, 기술주, 해운, 통화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가?

대만에서는 침공보다 봉쇄가 더 현실적인가?

그렇다. 침공은 군사적으로 가장 어렵고 위험한 옵션인 반면, 봉쇄·검문·회색지대 압박은 단계적으로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다만 봉쇄도 무위험이 아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미국과 동맹국의 개입, 제재전, 세계경제 충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봉쇄는 현실적이지만 자동적으로 안전한 선택은 아니다.

핵심 질문: 이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실증 지표는 무엇인가?

정책 함의: 해당 논쟁이 실제 외교·안보·산업정책으로 이어질 때 무엇이 달라지는가?

시장 함의: 에너지, 금리, 방산, 기술주, 해운, 통화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가?

달러 패권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달러 패권은 단순한 관성의 산물이 아니다. 미국 국채시장, 법제도, 군사력, 중앙은행 네트워크, 안전자산 선호, 글로벌 결제 인프라가 결합되어 있다.

단기적으로 달러 대체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부채 확대와 제재 남용이 다변화 압력을 키울 수 있다. 핵심은 급격한 붕괴보다 점진적 분산이다.

핵심 질문: 이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실증 지표는 무엇인가?

정책 함의: 해당 논쟁이 실제 외교·안보·산업정책으로 이어질 때 무엇이 달라지는가?

시장 함의: 에너지, 금리, 방산, 기술주, 해운, 통화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가?

AI는 세계경제에 생산성 혁명을 가져올 것인가?

잠재력은 크지만 속도와 분배는 불균등할 것이다. AI의 경제효과는 모델성능 자체보다 도입비용, 전력, 조직혁신, 데이터 접근, 규제에 달려 있다.

안보 측면에서 AI는 생산성도 높이지만 허위정보, 감시, 자율무기, 사이버공격 역량도 키운다. 따라서 AI는 성장엔진이면서 동시에 안보변수다.

핵심 질문: 이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실증 지표는 무엇인가?

정책 함의: 해당 논쟁이 실제 외교·안보·산업정책으로 이어질 때 무엇이 달라지는가?

시장 함의: 에너지, 금리, 방산, 기술주, 해운, 통화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가?

인도는 진정한 제3극이 될 수 있는가?

인도는 인구와 성장,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가장 유망한 제3극 후보다. 그러나 제3극은 경제규모만으로 되지 않으며, 국가역량과 인프라, 군사력, 외교조정력, 제도 신뢰가 함께 필요하다.

인도는 단기간 초강대국이라기보다, 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무시할 수 없는 독립 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핵심 질문: 이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실증 지표는 무엇인가?

정책 함의: 해당 논쟁이 실제 외교·안보·산업정책으로 이어질 때 무엇이 달라지는가?

시장 함의: 에너지, 금리, 방산, 기술주, 해운, 통화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가?

Global South는 반서방 블록인가?

대체로 아니다. 일부 반서방 정서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실용주의적으로 안보·무역·투자·원자재 거래를 다변화하려 한다.

즉 Global South는 하나의 이념 블록이 아니라, 강대국 경쟁을 활용해 더 좋은 조건을 끌어내려는 집합에 가깝다.

핵심 질문: 이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실증 지표는 무엇인가?

정책 함의: 해당 논쟁이 실제 외교·안보·산업정책으로 이어질 때 무엇이 달라지는가?

시장 함의: 에너지, 금리, 방산, 기술주, 해운, 통화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가?

부록 13. 실무용 해석 프레임

이 부록은 정책결정자, 투자자, 언론인, 연구자가 국제정세를 해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실무 프레임을 정리한 것이다. 같은 사건도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정책결정자 프레임

정책결정자는 도덕적 평가와 전략적 평가를 구분해야 한다. 무엇이 옳으냐와 별개로, 어떤 행동이 억지력을 높이고 어떤 행동이 비용을 낮추는지 따져야 한다.

또한 뉴스 소비가 아니라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다. 모든 위기에 같은 자원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가능한 위험과 대체불가능한 위험을 구분해야 한다.

질문 1: 이 프레임으로 보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가?

질문 2: 같은 사건을 다른 프레임으로 보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실무 메모: 해석 프레임을 바꾸면 정책 대안과 투자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투자자 프레임

투자자는 지정학을 “누가 이기나”가 아니라 “어떤 가격변수와 산업흐름으로 전이되나”의 문제로 읽어야 한다. 전쟁은 종종 에너지, 해운, 방산, 금리, 통화, 반도체, 전력 인프라, 사이버 보안 산업에 차별적 영향을 준다.

핵심은 헤드라인보다 지속성이다. 일회성 충격인지 구조적 리레이팅인지 구분해야 하며, 정부정책이 수익모델을 바꾸는 산업을 주목해야 한다.

질문 1: 이 프레임으로 보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가?

질문 2: 같은 사건을 다른 프레임으로 보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실무 메모: 해석 프레임을 바꾸면 정책 대안과 투자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언론인 프레임

언론인은 사건 중심 서술을 넘어서 구조와 맥락을 제공해야 한다. 예컨대 중동 공격 한 건은 단순 군사 뉴스가 아니라 유가, 호르무즈, 인플레이션, 중앙은행, 선거정치와 연결된다.

또한 전쟁 보도에서는 사실 확인의 속도보다 정확성이 중요하다. 전과와 피해 수치는 출처, 시점, 당사자 의도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질문 1: 이 프레임으로 보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가?

질문 2: 같은 사건을 다른 프레임으로 보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실무 메모: 해석 프레임을 바꾸면 정책 대안과 투자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연구자 프레임

연구자는 개념을 엄밀히 쓰는 것이 중요하다. 신냉전, 패권쇠퇴, 탈달러, 다극체제 같은 용어는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 지표와 연결되어야 한다.

정량자료와 질적 판단을 함께 써야 하며, 시계열 변화와 제도 변화, 담론 변화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질문 1: 이 프레임으로 보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가?

질문 2: 같은 사건을 다른 프레임으로 보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실무 메모: 해석 프레임을 바꾸면 정책 대안과 투자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기업가 프레임

기업가는 지정학을 규제위험과 공급망 기회라는 두 측면에서 읽어야 한다. 어떤 시장이 닫히는지뿐 아니라, 어떤 산업이 국가보조금과 안보정책 덕분에 커지는지도 중요하다.

특히 반도체, AI, 전력, 배터리, 방산, 광물, 해운, 데이터센터는 정책과 시장이 결합된 대표 분야다.

질문 1: 이 프레임으로 보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가?

질문 2: 같은 사건을 다른 프레임으로 보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실무 메모: 해석 프레임을 바꾸면 정책 대안과 투자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안보 프레임

안보 실무자는 위협의 의도와 능력을 분리해야 한다. 적대국의 발언만 보거나 능력표만 보는 것은 모두 불충분하다. 의도는 변할 수 있지만 능력은 구조를 만든다.

또한 군사력은 수량보다 사용개념과 산업동원, 동맹 호환성, 민간기술 결합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

질문 1: 이 프레임으로 보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가?

질문 2: 같은 사건을 다른 프레임으로 보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실무 메모: 해석 프레임을 바꾸면 정책 대안과 투자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경제외교 프레임

경제외교는 무역자유화의 시대와 다르게, 공급망·제재·투자심사·기술표준·산업보조금을 함께 다룬다. 외교부와 재무부, 상무부, 국방부의 경계가 흐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제외교의 핵심은 규칙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실제로 가치사슬의 병목을 통제하느냐를 파악하는 것이다.

질문 1: 이 프레임으로 보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가?

질문 2: 같은 사건을 다른 프레임으로 보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실무 메모: 해석 프레임을 바꾸면 정책 대안과 투자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역사 프레임

역사는 유비를 제공하지만 정답을 주지 않는다. 현재를 1914년, 1930년대, 냉전, 1970년대 오일쇼크와 비교할 수는 있지만, 디지털 기술과 공급망, 핵억지, 자본시장 통합의 차이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

정확한 역사 비교는 비유가 아니라 구조적 유사성과 차이를 동시에 보는 작업이다.

질문 1: 이 프레임으로 보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가?

질문 2: 같은 사건을 다른 프레임으로 보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실무 메모: 해석 프레임을 바꾸면 정책 대안과 투자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부록 14. 최종 실전 메모 — 무엇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마지막 부록은 본 보고서를 실제로 활용할 때 필요한 실전 메모를 제공한다. 국제정세를 공부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구조를 읽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람은 드물다. 아래 메모는 사건을 시스템으로 해석하기 위한 마지막 정리다.

1. 헤드라인보다 구조를 보라

대부분의 국제뉴스는 사건 중심으로 소비된다. 그러나 투자와 정책, 전략판단은 사건 자체보다 구조를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유가 상승 기사 한 건을 읽을 때도 그것이 단기 공급차질인지, 중동의 군사위협 프리미엄인지, OPEC+ 정책인지, 달러 강세와 결합된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

세계정세 해석의 첫 번째 원칙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다음에 반드시 “왜 지금, 왜 여기서, 누구에게 이익 또는 비용을 주는가?”를 묻는 것이다.

실무 질문: 이것이 오늘의 의사결정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가?

추적 포인트: 이 항목을 확인하기 위해 매주 무엇을 볼 것인가?

주의점: 단기 뉴스와 장기 구조를 혼동하지 말 것.

2. 국가를 단독 행위자로 보지 말라

국가는 단일 의지를 가진 블랙박스가 아니다. 국내정치, 재정, 산업, 군대, 관료제, 여론, 지도자 선호가 뒤섞인 복합체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볼 때도 백악관, 의회, Pentagon, Treasury, 산업계, 시장을 함께 봐야 한다.

중국 역시 당-국가 체제의 일체성 때문에 일관돼 보이지만, 성장, 부채, 지방정부, 수출시장, 사회안정이라는 제약이 동시에 존재한다.

실무 질문: 이것이 오늘의 의사결정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가?

추적 포인트: 이 항목을 확인하기 위해 매주 무엇을 볼 것인가?

주의점: 단기 뉴스와 장기 구조를 혼동하지 말 것.

3. 전쟁은 전장 밖에서 결정되기도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충돌을 보면, 전선의 움직임은 중요하지만 전쟁의 지속능력은 탄약생산, 재정, 외교, 제재회피, 사회적 수용성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전황 분석은 군사지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산업, 에너지, 외교연합, 정보전을 함께 읽어야 완성된다.

실무 질문: 이것이 오늘의 의사결정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가?

추적 포인트: 이 항목을 확인하기 위해 매주 무엇을 볼 것인가?

주의점: 단기 뉴스와 장기 구조를 혼동하지 말 것.

4. 경제는 안보의 도구가 되었다

관세, 수출통제, 보조금, 투자심사, 공급망 재편은 모두 안보정책의 일부가 되었다. 경제정책과 안보정책을 따로 보는 해석은 점점 더 현실을 놓치게 된다.

반도체, AI, 배터리, 광물, 조선, 에너지 인프라는 지정학의 중심 산업이다.

실무 질문: 이것이 오늘의 의사결정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가?

추적 포인트: 이 항목을 확인하기 위해 매주 무엇을 볼 것인가?

주의점: 단기 뉴스와 장기 구조를 혼동하지 말 것.

5. 에너지와 금융은 가장 빠른 전이경로다

군사충돌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종종 에너지와 금융시장이다. 유가, 가스, 해운보험, 국채금리, 달러, 금은 정치적 사건을 가격으로 번역한다.

국제정세를 실시간으로 읽고 싶다면 외교성명만큼이나 Brent, UST 10Y, DXY, LNG spot, CDS 를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실무 질문: 이것이 오늘의 의사결정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가?

추적 포인트: 이 항목을 확인하기 위해 매주 무엇을 볼 것인가?

주의점: 단기 뉴스와 장기 구조를 혼동하지 말 것.

6. 확률과 영향을 분리하라

가장 가능성 높은 사건과 가장 위험한 사건은 다를 수 있다. 예컨대 대만 전면침공의 확률은 중동의 제한전보다 낮을 수 있지만, 영향은 훨씬 더 파괴적이다.

전략기획은 평균적 미래가 아니라, 낮은 확률이더라도 체제를 바꿀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대비를 포함해야 한다.

실무 질문: 이것이 오늘의 의사결정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가?

추적 포인트: 이 항목을 확인하기 위해 매주 무엇을 볼 것인가?

주의점: 단기 뉴스와 장기 구조를 혼동하지 말 것.

7. Global South 는 제 3 세계가 아니라 협상공간이다

많은 국가들은 미중 어느 한쪽에 전적으로 속하지 않는다. 그들은 최대한 많은 선택지를 유지하려 한다.

이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국제정세를 냉전식 진영논리로만 해석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실무 질문: 이것이 오늘의 의사결정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가?

추적 포인트: 이 항목을 확인하기 위해 매주 무엇을 볼 것인가?

주의점: 단기 뉴스와 장기 구조를 혼동하지 말 것.

8. 좋은 분석은 요약이 아니라 우선순위 설정이다

정보의 양은 많지만 의사결정 시간은 짧다. 좋은 보고서는 모든 것을 말하는 문서가 아니라,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가려내는 문서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최종 목적은 사건을 나열하는 데 있지 않고, 2026년 세계를 움직이는 핵심 축이 무엇인지 식별하는 데 있다.

실무 질문: 이것이 오늘의 의사결정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가?

추적 포인트: 이 항목을 확인하기 위해 매주 무엇을 볼 것인가?

주의점: 단기 뉴스와 장기 구조를 혼동하지 말 것.